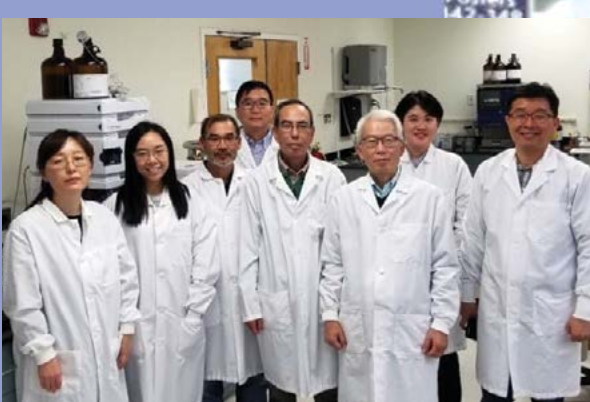


“꿈을 현실로 바꾸는 아름다운 도전을 추구하며”

고종성 (사대 75, GENOSCO 대표이사)

당뇨약 “제미글로” 탄생 후, 두번째 신약 "Lazertinib(GNS-1480)"을 Johnson & Johnson에 1.4조 원 기술 수출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협업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Lazertinib의 탄생은 같이 일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꾸민 꿈 덕분"



고종성 (사대 75)

신약 개발에 인생의 비전을 세우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심상철 교수님 (문리대 56) 연구실에서 미국국립암센터(NCI) 연구프로젝트를 하면서 인생의 비전을 신약개발에 헌신해 좋은 치료제를 만들어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크게 3가

지 있는데 education, innovation, economic growth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이나 국립연구소대신 Innovation을 통한 economic growth를 추구하기 위해 기업에서 일하기를 택했다. 과학이라는 지식을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고 그 중에 신약개발이 국민건강, 크게는 세계건강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다. 신약개발의 또 다른 면은 하나의 좋은 신약을 만들면 수 십년 동안 수 억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상당한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로서 이만한 명분이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약개발은 약효 연구, 독성연구, 임상연구를 다 거쳐가야 하기때문에 많은 역경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역경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면 신약개발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야 하고 왜 신약개발 철학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실패 끝에 한국신약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쓴 당뇨약 “제미글로”를 첫번째로 탄생시키다.



LG생명과학 제미글로 발명 감사패 증정식

신약개발은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여 신약개발 본고장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박사과정을 Caltech을 택하여 그 당시 태동하는학문인 생유기화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샌디에고 소재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에서 항체연구를 한 후 LG생명과학에 입사해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새로운 신약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적 신약을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중점프로젝트AIDS치료제, 항암제, 당뇨치료제 연구개발에 온 힘을 다했으나 독성, 임상실패로 10년간 매우 쓴 여러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한동안 나의 신약개발 비전이 흔들린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실패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때 신약을 직접 임상실험을 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하는 의사분들의 조언과 지혜를 접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매우 정교한 신약개발 전략을 세워 제미글로

를 탄생시켰다. 제미글로가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을 하기에 가능하였던 것이었다. 모든 구성원이 좋은 당뇨치료 신약탄생이 가능하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징기스칸의 말대로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사람의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가 제미글로 연구개발팀 구성원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다. 제미글로는 임상도 성공하여 국제적 제약사인 Sanofi에 기술 수출되어 향 후 104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이고 2018년에는 한국에서만 80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의사가 처방하고 싶은 당뇨치료제 1위라고 하니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



협업을 같이한 유한과 Johnson & Johnson

제미글로는 한국신약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이 국내에서만800억 매출을 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매출기록보다도 나는 제미글로 개발을 통해 고생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 첫째 당뇨환자분에게 좋은 치료효과를, 둘째 몸 담았던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세째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열정을 심어 준 것이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아닌가 한다.

LG 생명과학 제미글로 발명 감사패 증정식 두번째 신약 개발을 위한 도전을 위하여 보스턴으로 향하다.

제가 LG생명과학이란 큰 조직에서 제미글로라는 당노약을 개발하여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것은 큰 조직에서 한 일이고, 작은 조직으로도 좋은 신약을 만들 수 있다는 도전을 하고 싶었다. 그 바탕에는 신약개발은 규모의 경제보다 아이디어경제라는 것을 증명하여 젊은 과학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었다. 아시다 시피 1998년 IMF때 미국이 경제위기에 몰린 한국에 투자를 하여 엄청난 부를 챙겼다. 대표적인 예인 Lone Star라는 투자회사는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4조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여러가지 사회적 지탄도 받았다.

저도 역발상으로 2008년에는 미국이 서브프라임으로 많은 제약회사 및 바이오텍이 대량해고 및 문을 닫아 유능한 인재가 대거 쏠아져 나와 훌륭한 인재채용이 가능하고, 건물임대가 저렴하여 저비용으로 매우 SMART한 전략만 있으면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이 가능하고 개발된 신약을 미국 거대제약회사에게 비싸게 기술이전 할 수 있다는 꿈이 생겼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서브프라임이 시작된 2008년 안정한 직장인 국가항암제 연구단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무모하다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들 (경영 2002)의 적극적 지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족의 지원과 더불어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실행 할 파트너가 필요한데 대학시절 새강원의숙이라는 기술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같은 비전을 갖고 있어 치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창업한 오스코텍(주) 김정근 (치대 78) 사장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김정근 사장은 자본을 나눈 신약개발기술과 아이디어로 의기투합하였다. 우리 두사람은 Boston이 최고의 대학 및 병원/제약회사 및 바이오텍 인프라/자본/학회 등 Location Quotient (LQ)가 높아 전세계 바이오텍의 Mecca여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정해져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두번째 신약 Lazertinib(GNS-1480)을 Johnson & Johnson에 1.4조 기술 수출: Genosco 과학자들이 꾸는 꿈은 이루어지어 현실이 되는가?

Genosco직원은 11명으로 3H 즉, Head (창의성), Heart (열정), Hand(실행) 정신으로 3R, Right Target (맞춤 표적), Right Patient (맞춤 환자), Right time/적기)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여 정밀하게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Global 수준의 신약을 개발하는 비전을 갖고 직원들과 공유하며 시작했다.

신약개발 1단계 전략은 제노스코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고 (Value Creation/IP확보), 몇 백억이 드는 임상 I/II상은 한국 제약회사가 협업하고(Value Addition), 수천억원이 드는 임상 3상은 Global Company에 기술 수출하여 세계시장에서 각광받는 신약 (Value Promotion)이 되게 하는 협업 Model을 추구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부족한 연구비와 거듭된 실패를 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신약으로 환자가 치료되는 꿈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좋은 협업 파트너 덕분에 보스턴에서 도전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2018년 11월 1일 Johnson & Johnson라는 거대 제약사에 Lazertinib을 마일스톤 1.4조원과 상품회사 막대한 로열티 조건으로 기술수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Lazertinib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이익은 협업한 Genosco/오스코텍/유한양행이 계약에 의해 분배하게 되어 있고 임상 3상까지 성공하여 좋은 항암제로 허가 받으면 막대한 로열티가 들어와 우리들이 같이 꾸어 왔던 꿈이 현실이 될 것으로 본다. Lazertinib은 폐암 치료제인데 아시아 사람들 폐암 중 45%가 EGFR(상피세포 수용체)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긴 암과 뇌로 많이 전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폐암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Lazertinib은 EGFR 정상유전자는 억제하지 않고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만 억제하여 암을 치료 할 수 있는 고도의 design 기술이 접목되어 부작용이 적고 뇌전이 환자도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항암제이다.

신약개발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항상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Lazertinib이 임상 3상 성공하여 폐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잘 치료되어 환자가 대박나는 날을 기원할 것이다. 또한 Lazertinib의 신약 성공을 통하여 후배 과학자들에게 나름대로 Role Model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작은 조직으로도 어려운 신약개발을 할 수 있다는 Candoism/Yes, we can을 보여 주어 젊은 후배 과학자들에게 신약 개발에 도전하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 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협업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Lazertinib의 탄생은 같이 일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꿈 꾸 덕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 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부인 부모님은 저에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몸과 두뇌를 주셨고, 제일에 간섭하지 안으시고 저를 믿고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게 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신 부모였으면 년 왜 안정된 대학 또는 국립연구소로 안가고 기업에서 일하려고 하느냐 하셨을텐데요. 더불어 제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지원한 아내와 아들 딸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화진포에서

지금은 연구 개발하기 더 어려운 세번째 신약을 만들기 위한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백 순 (법대 58)
논설 위원

17~18세기 이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함께 인류에게 번영과 자유를 가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위기설이 태동되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영국의 주간지인 The Economist 지가 11월 17일 호에 The Next Capitalist Revolution (다음 자본주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특집을 발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 자본주의 위기의 해결책을 탐문해 보기로 한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들어 서서 현대 자본주의가 배출하고 있는 문제 및 위기의 증상은 크게 나누어 (1) 저역동성과 저성장, (2) 점점 넓어 지는 불평등 등 2가지이다.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큰기업의 독점화와 노동의 약세화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력 (Competition)

을 회손하고 약화시키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문제인 저성장과 불평등을 낳게 된다..."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금의 세계경제는 선진경제이든 발전도상의 뜨는 경제이든 몇 몇 뜨는 경제를 제외하고는 저성장의 추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선진 경제인 미국, 유럽 연합,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3.0%, 1.7%, 0.3%이고, 뜨는 경제도 중국과 인도의 6.5%와 8.2%를 제외하고는 브라질, 러시아 등 대부분의 발전도상 경제가 2.0%이하로 저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경제의 경제 불평등 통계는 불평등의 현상이 점점 넓어 짐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발표된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의 통계에 의하면, 선진경제인 미국-캐나다와 유럽에서 최상위 10% 층의 국민소득 분배 비율이 1980년 35%와 31%에서 2016년 각각 47%와 37%로 크게 상승한 반면, 최하위 50% 층의 국민소득 분배 비율은 20%와 22%에서 각각 13%와 20%로 크게 떨어졌음을 보여 준다. 뜨는 경제 가운데 중국과 인도의 경우 최상위 10% 층의 국민소득 분배 비율이 28%와 31%에서 41%와 55%로 급격히 상승한 반면, 최하위 50% 층의 국민소득 배분 비율이 27%와 23%에서 각각 15%와 15%로 하락했음을 보여 준다.

이렇듯 경제의 저성장과 불평등의 증가가 현대 자본주의가 품어 내는 위기의 증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 및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탐문함이 요청된다 고 하겠다.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인 저성장 과 불평등은 크게 나누어 [1] 큰기업의 독점화와 [2] 노동의 약세화 등 2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탐색할 수 있겠다.

기업주의(Entrepreneurship)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힘이지만 큰 기업들이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으면 그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기에 이르게 된다. 큰 기업의 독점화는 1) 큰기업의 판매 비율, 2) 큰기업의 현금 유용, 3) 큰기업의 비정상 고도이윤 비율, 4) 새 기업의 시장 참여율 등의 통계로 나타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4대 및 8대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 판매 점유율은 27% 및 38%이고, 큰기업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윤기향 (법대 65)

지금 세계경제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으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이다. 언뜻 보면 이 둘 사이에는 별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게 된다. 최근의 움직임은 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보수정권의 등장과 함께 강하게 불었던 신자유주의 물결이 가져온 세계화에 대한 반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Brexit)는 영국의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탈퇴를 말한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EU 탈퇴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찬성 51.9% 반대 48.1%로 탈퇴안이 통과되었다.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EU 의회와 영국 의회가 이를 비준해야 하는데 EU는 2018년 11월 25일 이를 승인했다. 영국 의회는 12월 11일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부결을 우려한 메이 총리가 표결을 전격 연기함으로써 영국이 예정대로 2019년 3월 29일 EU에서 탈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되었다. 최악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 (합의 없는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아니면 탈퇴 자체를 재고하는 제2의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왜 영국이 EU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경제통합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여러 나라들은 역대 국가 간 물질, 인적 교류의 확대가 유럽에서 전쟁의 참화를 막는 중요한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50년대에 GATT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틀 안에서 경제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결실이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탄생한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다. 여기에는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 등 여섯 나라가 참여했다. 영국은 EEC의 초기 멤버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1973년 아일랜드 및 덴마크와 함께 가입했다. 그 뒤 1993년에는 EU의 출범과 함께 EEC는 EC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로 개편되었으며 2009년에는 EC의 모든 가구가 EU로 통합되었다. EU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야기되고 있는 저성장과 불평등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작하고 활성화 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현대 자본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인 큰기업의 독점화와 관련해서 경쟁력을 활성화하는 해결책 3가지와 노동의 약세화와 관련된 경쟁력 활성화의 해결책 1가지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해결책 1은 현재 반독점법을 21세기의 기업

28개 EU 회원국을 가운데 19개 나라들이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을 구성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무역전쟁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영국이 처음부터 EU에 늦깎이로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단일 통화권인 유로존에 가입하기를 거부한 점이다. 영국은 대륙 국가들과 달리 해양국가로서 미국과 더욱 강한 연대감을 공유했을지도 모른다. EU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노동 및 자본의 역내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역내 간 이동이 자유로워졌는데 이는 유럽 사회에 실업자 증가, 이민 및 난민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분위기 아래에서 영국 국민들 사이에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브렉시트로 구체화된 것이다.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위기의 소용

는 계속 영역을 넓혀 왔는데 1995년까지 추가로 여섯 나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및 스웨덴)가 가입해서 EU의 회원 국가는 15개 국가로 늘어났다. (한편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구권에 속했던 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해서 2018년 12월 현재 EU 회원국 수는 총 28개 국가에 달한다.) 영국이 이러한 EU로부터 탈퇴하겠다는 것이 바로 브렉시트다.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들 15개 EU국가들은 경제통합을 더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9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했다. 여기에서 2002년까지 단일 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과 단일 통화 (euro)의 출범을 목표로 하는 유럽통화동맹 (European Monetary Union, EMU)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15개 EU 멤버들 가운데 그리스와 스웨덴은 당초 유럽통화동맹의 가입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했고 영국과 그리스는 유럽통화동맹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11개 나라들이 EMU의 창립 멤버가 되었고 그들은 2002년부터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EU의 회원국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럽통화동맹 (유로존)에 가입한 나라들도 늘어나 2018년 12월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실시하는 방책이다. 규제 기관이 시장에 있어서 기업들이 보다 폭넓은 경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수립, 시행 함이 요청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큰 강력한 기업들이 새롭게 뜨는 경쟁 기업들을 흡수해 버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등이다.

해결책 2는 신생 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법적 및 제도적 방책벽을 헐어 버리는 방책이다. 무경쟁 조항의 삭제, 직접 허가증

28개 EU 회원국을 가운데 19개 나라들이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영국이 처음부터 EU에 늦깎이로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단일 통화권인 유로존에 가입하기를 거부한 점이다. 영국은 대륙 국가들과 달리 해양국가로서 미국과 더욱 강한 연대감을 공유했을지도 모른다. EU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노동 및 자본의 역내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역내 간 이동이 자유로워졌는데 이는 유럽 사회에 실업자 증가, 이민 및 난민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분위기 아래에서 영국 국민들 사이에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브렉시트로 구체화된 것이다.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위기의 소용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들 15개 EU국가들은 경제통합을 더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9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했다. 여기에서 2002년까지 단일 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과 단일 통화 (euro)의 출범을 목표로 하는 유럽통화동맹 (European Monetary Union, EMU)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15개 EU 멤버들 가운데 그리스와 스웨덴은 당초 유럽통화동맹의 가입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했고 영국과 그리스는 유럽통화동맹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11개 나라들이 EMU의 창립 멤버가 되었고 그들은 2002년부터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EU의 회원국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럽통화동맹 (유로존)에 가입한 나라들도 늘어나 2018년 12월 현재

요구 조항의 철폐, 자료와 특허의 개방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방책들이다.

해결책 3은 특정 집단에 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도 개방된 디지털 시장 (Digital Market)을 창설하는 방책이다. 디지털 시장의 창설은 경제성장을 결과하는 혁신을 가능케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면하나 특허의 제도도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단기적이고 수월하게 운영 됨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치고 있다. 비록 2018년 11월 30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회담에서 두 나라는 90일 간 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포화가 완전히 멈춘 상태는 아니다.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3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은 영국의 보수당 정권과 2017년 1월 새로 출범한 미국의 공화당 정권은 모두 보수 정권의 가치를 내걸고 등장했다. 보수주의의 여전사로 칭송받던 마거릿 대처가 1979년 영국의 총리로 선출되었고 역시 보수주의의 기수였던 레이건이 1980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약 40년 만에 두 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보수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브렉시트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이들 보수주의의 색채는 레이건과 대처가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와는 결이 다르다. 레이거노믹스와 대처주의 모두 자유시장, 자유경쟁, 자유무역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복원시킨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처 총리는 평소 TS. 엘리엇의 연작시 <네 개의 4중주> (Four Quartets), 그 가운데에서도 <리틀 기딩> (Little Gidding)을 애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틀 기딩>은 신자유주의 기수로서의 대처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종교적 색채가 짙은 시다. 2013년 4월 18일 대처 총리의 장례식 프로그램에서 첫 페이지를 장식한 것도 바로 <리틀 기딩>의 맨 마지막 절이었다. 그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다.

"역사는 현재이며 바로 영국이다. 이 사랑의 그림과 이 소명의 소리로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으리니 우리의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시작했던 곳에 도달할 것이며 우리는 그곳을 처음으로 알게 되리라."

대처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 추구하던 가치는 자유경쟁, 자유무역, 자유시장경제로 대표되는 열린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의 메이 총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미국 우선주의, 영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닫힌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적 보수주의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시장경제체제의 승리를 가져다주었지만 폐쇄적 보수주의는 세계경제에 불안과 혼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경제학교수 *연구 논문들이 세계 유수의 경제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European Journal of Finance, Macroeconomic Dynamics 등에 다수 발표되었으며 현재 논문 피인용 횟수가 400여 회에 달한다.

해결책 4는 노동의 약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의 조직화를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로 증가하는 방책이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노동 조직화는 노동의 연결행동 (Labor Connective Action)이라고 하는 활동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노동 조직의 수집, 노동자들 간의 협력, 노동 캠페인의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의 약세화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경제학 교수



이항렬 (법대 57)

논설 위원장

2018년 미국 중간 선거와

정치 상황

미국인들과 언론의 최대 관심사였던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가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40석을 더 추가하여 과반수인 218석을 훨씬 초과한 235석으로 다수당이 되었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3석을 더 추가하여 53석으로 다수당으로 다시 남게 되었다. 36개주의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7개주에서 승리함으로써 23주의 주지사가 민주당이며 공화당은 27개주의 주지사를 장악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인데 대략 40%대를 가르고 있다. 그가 여성들을 비하하는 태도(Mysogenic), 과격한 이민정책, 2016년 대선 때 러시아와의 공모, 결탁 조사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또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고조되었던 관계로 공화당이 불리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선거 직전 10월 말 3일 동안 발생한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보내진 Pipe bomb 사건, 캔터키주의 Super Market에서 흑인 사살, Pittsburgh 유대교회에서 11명의 유대인을 사살한 자들은 모두 백인우월주의를 부르짖는 극단 우익주의자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특히 트럼프의 반이민자 정책을 지지하여 온두라스에서 오는 카라반(이주민 행렬)을 무력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외침(Shouting)에 동조하는 과격우파 보수주의자들이다. 민주당원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런 과격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많은 상하원의원들은 트럼프의 과격한 선동적인 언행이 이런 극단주의자들을 자극시키고 폭력을 일으킨다고 언행을 좀 온화하게 사용하라고 권고하나 73세의 대통령은 그의 오래된 버릇을 고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매일같이 선거유세에 나갔으며 그의 대통령직 생활이 이번 선거에 달렸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여론조사가 예견한 것처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니 민주당의원들이 1월부터 위원회 의장(Committee Chairman)이 되며 그들은 위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공모, 결탁 심사를 더 적극 추진할 수 있고, 그가 감추고 있는 세금보고서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뮐러(muller)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도 공개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안하면 탄핵소추도 발동시킬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직접관계되는 이민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있다. 트럼프 발표에 의하면 합법적인 이민자 수도 반으로 줄이고, 가족초청이민(Chain Migration)도 금지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부인 멜라니(Melanie)와 그 가족도 가족 초청으로 이민으로 되었으며 멜라니는 소위 과학자나 특별한 예술가를 초청하는 소위 아인슈타인 비자(Einstein Visa)로 미국에 정착한 것이다. 특히 10월 30일 경,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Executive Order)으로 미

국에서 출생한 외국의 아이들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아마도 그를 지지하는 반이민자들의 중간 선거 투표를 겨냥한 책임없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전세계에서 미국인 이런 바보같은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 30여개 국가가 자기 영토에서 출산한 아기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위 시민권 부여를 출생지역법(jus soli) 원칙에 따르는 것인데, 미국 헌법 14조 수정안(14th Amendment)에

"미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한인 사회가

이제는 정치적 신장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한다.

... 앞으로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될 것이다."



서도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나 시민권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미국시민이라고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폐지한다면 헌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짓이다. 이런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많은 히스패닉 계의 미국인, 소수민족의 이민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지지투표를 하였으며 한국계 미국 시민들도 약 62%정도가 민주당 후보에게 찬성 투표를 하였던 것이다. 미국에 정착한 많은 우리 지성적인 동문들도 미국 국화선거와 도지사 선거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공화당은 소수민족들의 민주당 지지경향을 봉쇄하기 위하여 Georgia, South Carolina, South Dakota에서 새로운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한 예로 많은 남부 지역과 공화당 지지주(Red State)에서는 소수민족들에게 불편하게 두 개 이상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North Carolina 한국인 뉴스에 의하면 유권자의 이중등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크로스 체크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한다. 크로스체크는 유권자의 이름, 소셜시큐리티, 생년월일을 비교해 이중투표 여부를 가려주는 서비스이다. 이 시스템은 서로 다른 유권자의 이름을 비교해 두 번이상 같은 이름이 나온 경우 유권자의 투표를 제지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인, 라티노, 흑인 등 수백만명의 유색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11월 6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흔한 성(Last Name)인 김, 이, 박 씨들의 경우, 약 7명 중의 한 명은 선거를 해도 '임시투표(Provisional Ballot)'로 분류되거나 투표를 못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인 유권자들은 선거전에 자신의 선거유권자 등록 여부를 재확인 하는 것이 좋다. 성이 로드리게스, 가르시아, 잭슨, 워싱턴, 김, 리, 박 등의 1백6십 6만여 명의 소수민족 유권자들은 특히 이같은 크로스 체크의 집중 타겟이므로 반드시 유권 등록 여부를 살펴야 한다.

2016년 대선 후, 트럼프는 힐러리가 전체 국민투표에서 3백만 표를 더 받은 것은 3백만의 불법이민자들이 투표하였기 때문에 생긴

그 주원인이 아닐까 한다. 미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한인 사회가 이제는 정치적 신장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한다. 따라서 한인사회 정치적 신장이 긴요하며 앞으로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영향은 한인계 미국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달렸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또하나의 비민주적인 선거방법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각 선거구역을 각 주의 회가 결정하는데 다수당들은 매 10년 인구조사(Census)가 있을 후, 선거구역을 자기 당에 이익이 되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Gerrymandering(속임수)'이라하며, 2000년에 민주당 17석, 공화당 15석이던 것이 구역을 바꾼 2002년 선거에서 공화당 21석, 민주당 11석으로 바뀌진 텍사스의 선거 결과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런 정치적 술수를 막기위해 매 10년마다 많은 주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각 선거구마다 인구수가 비슷해야 되고 'One Man, One Vote'라는 공평한 숫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도 많은 주가 'Gerrymandering'을 사용한다.

또 다른 비민주주의적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직 효과(Incumbency Advantage)다. 최근 10년 동안 국회 선거결과를 보면 재직의원 재당선율이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다. 즉, 새출마자가 당선할 경우는 10%정도라는 것이다. 한번 당원이 되면 돈줄과 이름이 잘 알려져 계속 당선되니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의 구상이 없는 것이다. 또한 엄청난 선거자금이 필요하고 특히 대법원의 판결로 어떤 주식회사(Corporation)도 개인과 같이 제한없이 선거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판결로 현재 미국국회는 투표자를 대표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쓴 이익단체나 회사들의 이익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한 때 오랫동안 야당 생활을 한 공화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임기제한(Term Limit)을 주장했던 법안이 다시 상정되어야지 미국국회도 더 민주주의적 의회와 참신한 기관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영국의 훌륭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인용한 민주주의에 대한 코멘트가 떠오른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정치 이념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정치 이념, 공산주의, 나찌즘, 파시즘의 독재자(Authoritarian)나 독재 시스템(Despotic System),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 비하면 제일 훌륭한 System이다." 이런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선거제와 높은 참여율이 중요한데, 2018년 중간 선거에서도 2014년 36.6%의 참여율보다 많은 50%이상이 투표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 미국이 독립한 1776년부터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막았는데, 그때의 선거법에 의하면 단지 백인 남성, 집소유자들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여성들은 1920년에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흑인은 1965년에 투표권이 보장 받게 되었다.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또다른 이유는 미국 투표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니고 화요일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많은 장애물 때문에 소위 세계의 지도국들이 미국이 선진국 34개 나라 중 투표참여율이 32번째다. 이런 상황을 개혁하지 못하면 미국은 민주 국가의 지도자 격을 상실할지 모른다.

전 쉐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재미한국정치학회 회장



김은한 (의대 60)

회보 고문

부시 대통령

George H. W. Bush (1924~2018) 미국 41대 대통령이 2018년 11월 30일 오후 10시에 94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는 매사추세츠 주 밀튼에서 출생하였고 아버지는 커네티컷 주 연방 상원의원이었다. 해군 복무 중에 Barbara Pierce (1925~2018)와 결혼해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큰아들이 43대 대통령 George W. Bush (1946)이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부자 대통령이 나왔는데 제2대 John Adams 대통령과 제6대 Quincy Adams 대통령, 그리고 41대 George H. W. Bush 대통령과 43대 George W. Bush 대통령이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2째 아들 Jeb Bush가 당선 되었다면 3부자 대통령이 탄생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Barbara Bush 여사는 금년 2018년 4월 19일에 사망하였다. 대통령과 73년을 함께 살았다. 대통령 부부로는 제일 오랫동안 생존했던 부부였다. 1945년 조지가 20세 때 둘은 결혼했다. 첫째 자식이 43대 대통령 부시였고, 두 번째가 딸 Robin이었



는데 3살 때 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비바라도 우울증으로 고생하게 되었다. 2013년 2살짜리 부시 경호원의 아들이 예의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조지 부시가 어린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모든 경호원들과 함께 완전 삭발하였다. 조지부시가 어떤 사람 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유해는 텍사스 주 컬리지스테이션에 있는 A&M 대학으로 옮겨져 올해 초 타계한 부인 바바라 부시와 세 살 때 사망한 Robin 옆에 영면할 것이라고 한다.

조지 부시의 화려한 인생 역정은 1942년 Massachusetts Andover Phillips Academy의 졸업과 함께 시작하였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에일 대학 입학 을 보류하고 18세의 최연소 해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그의 폭격기가 피격 당해 비행기가 화염을 뿜고 있는데도 폭격을 끝내고 낙하산의 도움으로 4시간 후에 잠수함으로 구조되었다. 제대후,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 낙

선, 공화당 전국 위원장, UN 대사, 중국 베이징 연락 사무소장,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전에서 Ronald Reagan에게 패배하였다.

부시 전 대통령의 진면목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 구도를 종식 시킨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1989년 12월 2일과 3일 부시 대통령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과 지중해 Malta에서 만나 양국의 전략 핵무기를 35% 감축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50%씩 감축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가 협력과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누가 이겼는가?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동구권과 소련연방이 와해되었는데 승자는 미국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정작 부시의 생각은 달랐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정작 그는 베를린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 "지는 곳 잊지 그럼 그렇게 가는구나."

- 공자 (孔子, 552~479 BC) 만년에 아들 백어가 죽고, 사랑하는 제자인 안희와 자료가 잇따라 죽었다. 72세 때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다. 이어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 제자 자공에게 "이제 나는 아주 말도 하지 않으려다. 사시가 운행되고 만물이 성장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말을 남기고 7일 후에 숨을 거뒀다.

▲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 오드리 헵번 (Audrey Hepburn, 1929~1993, 미국 영화 배우) 화려한 영화 배우에서 인류 봉사의 삶을 택한 그녀가 사랑하는 딸에게 남긴 유언이다.

얼마 전 부시 전 대통령이 소련 푸틴 수상을 Maine Kennebunk port 별장으로 초대해서 바다낚시를 함께 즐겼다고 한다. 근래 미국과 소련 관계가 뜨악한데 트럼프가 해 줄 일을 부시가 대신 해 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금년 4월에 바바라 부시가 사망하자 장례에 초대된 명사 명단에 트럼프가 빠지기 도 하였다.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 힐러리에게 투표하겠다고 했었으니 보통 약언이 아니었다. 지난 8월에 사망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사담 후세인을 무찌르고 우리 모두가 승전 무드에 잠겨 있을 때 뉴욕에서 벌어진



장동만 (문리 55)

명사(名士)들의

감동여린 유언들 1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긴 위인/명사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유언)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숨을 거두면서 그들 일생의 삶을 총 정리, 축약해 단진 그 '마지막 말 (last words)' 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던진다. 유명 인사들의 유언 중 값이 되써어 봐야 어렵듯이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종교적, 철학적, 현학적인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날은 극히 간결/정서적 향기가 물씬 풍기는 유언들을 모아 본다.

▲ "이것이 끝이로구나. 그러나 '니체보 (상관 없다)', '나에게 아내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 톨스토이 (1828~1901, 러시아 문호) 아내와 가족들에게 늘 소외 당했던 그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82세 때 가솔, 기차를 타고 가다 폐렴에 걸려 철도원의 오도막 방에서 쉬던 중 이 말을 남기고 숨졌다.

▲ "지는 곳 잊지 그럼 그렇게 가는구나."

- 공자 (孔子, 552~479 BC) 만년에 아들 백어가 죽고, 사랑하는 제자인 안희와 자료가 잇따라 죽었다. 72세 때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다. 이어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 제자 자공에게 "이제 나는 아주 말도 하지 않으려다. 사시가 운행되고 만물이 성장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말을 남기고 7일 후에 숨을 거뒀다.

▲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 오드리 헵번 (Audrey Hepburn, 1929~1993, 미국 영화 배우) 화려한 영화 배우에서 인류 봉사의 삶을 택한 그녀가 사랑하는 딸에게 남긴 유언이다.

승전 축하 파티에 부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러 자리를 피해 준 것이다. 그 이유를 묻자, 정작 파티를 즐겨야 할 사람들은 군인들이라고 답변하면서 뉴욕으로 갈 생각을 접어버렸다.

조지 부시는 어려울 때는 힘을 보태지만 축하파티는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이었다. 사막의 폭풍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아무도 조지 부시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을 점치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데 패배했다. 왜? CBS TV 백악관 담당자인 Major Garrett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를 마치면 끝나게 되는데, 부시는 레이건 대통령 때 두

그녀는 또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한다.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진실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낯선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네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라."

▲ "내 죽으면 시체를 화장해서 가루로 만들고, 비행기에 싣고 하늘로 올라가서 전 국토 위에 뿌려 달라. 10 억의 중국인과 함께 있고 싶노라."

- 모택동 (毛澤東, 1893~1976, 중국 전 국가주석) 그러나 이 유언은 현실화 되지 못했다.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텐안문 (天安門) 광장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 "저리 꺼져! 유언이란 살아서 충분히 말하지 못한 병신들이나 남기는 거야!"

- 칼 마르크스 (Karl Marks, 1818~1883, 독일 정치 이론가)

▲ "나 때문에 천하의 남자가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 했으니, 내가 죽거든 관을 쓰지 말고 시체를 동문 밖 모래터에 그냥 내쳐 개미와 벌레들이 내 살을 뜯어 먹게 함으로써 천하 여인들의 경계로 삼아라." - 황진이 (黃眞伊, 조선 중기 名妓, 생존 연대 미상). 그녀는 자신을 연모한 15세의 동네 총각이 상사병으로 죽자 기생이 되기를 결심했다 한다.

▲ "난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 헤밍웨이 (1899~1961, 미국 소설가) 62세에 우울증으로 아이다모주에서 염종으로 자살하면서 남긴 말이다.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도 1928년 관중 자살했다.

번의 임기를 마치고 부시 정부에서 또 한 번의 임기를 마쳤으니 부시는 3번의 임기를 마친 것이다. 네 번의 임기를 마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거기다가 불경기로 세수가 감소하자 야당 (민주당)에서는 소비를 늘리고 증세를 요구하고 있었다. 집권 초에 "Read my lips, no more taxes"를 약속했지만 다수당이 민주당이 된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고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이미 예상한 수순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는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애국자이고 신사도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지역 동창회 소식 및 동문 동정

뉴잉글랜드 동창회
2018 송년모임 개최

52학번부터 2012학번까지 폭넓게 참석

남성 중창단 공연 감상, 퀴즈 풀기 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기사: 김유경 동문, 보스턴】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윤은상)는 지난 8일 (토) 연말 모임을 벌링톤 소재 Café Escadrille 연회장에서 열어 60여 명의 동문들이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윤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동문회 모임에 참석하고 준비해 주신 이사, 고문, 임원,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연말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

다”며 동문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아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모임을 위해 이재신 전회장, 정정욱 전회장, 김은한 자문이사 그리고 윤상래 미주총동창회 회장이 현급 및 현물로 후원하였으며, UMASS 교수 윤용구 동문은 장학생의 선발과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최찬혁 (의대) 동문과 김지풍 (농대) 동문은 신임이사로 새해부터 동문

회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행사에서는 1952학번부터 2012학번까지 아우르는 참가회원과 임원 및 이사진이 소개되었고, 지난 해의 동문회 활동상황 보고와 내년도 계획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내년 6월 15일 벌링톤 Seven Springs Condo 클럽 하우스에서 열릴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모교 음대 출신 동문들로 이루어진 남성 중창단의 축배의 노래, 오 솔레미오, 향수 등의 감동 깊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으며, 양코

르 곡인 화이트 크리스마스 캐롤을 다 같이 부르며 동문간의 우애를 나누었다.



김세영 (음대 12), 이규영 (음대 03), 김승윤 (음대 05)

이어서 윤회장의 모교 홈카밍데이 참석과 울릉도/독도 학덕비 복원행사 보고 후 동창회 산하 모임인 산우회 회장인 김정선 동문이 지난 산우회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정기적인 산행으로 건강을 회복하며 활기찬 생활의 원동력을 얻은 경험을 공유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퀴즈 및 상품 전달, 모교 동창회 신문, 달력, 동창회 수첩 배부 등으로 정답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윤은상 회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년 총회 참석을 부탁하며 마무리를 하였다. 동창회 소식과 행사 사진은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snuuane/>)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새로오신 분이나 기타 문의는 이메일 (snuuane@gmail.com)로 하면 된다.



전무식 회장 박해란 전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즐거운 만찬 시간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 크리스마스 캐롤과 교가 합창

국 수의대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날 하층은 실수로, 미국법을 어겼다 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되어, 4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현석 (공 85) 동문을 위한 모금을 했다. 많은 동문들이 즉석에서 \$1,740.00 을 기증하셨다. 후배를 사랑하는 필라 동문들의 넓은 마음을 보며, 또 동창회의 지력을 보는 듯해서 뿌듯한 마음을 느꼈다. 동창님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다.

뉴욕지역 동창회
2018 송년회 개최

200여 동문 참석, 성황리에 개최

동문합창단, 3인 테너 공연, 장학생 시상식, 댄스 등 행사 진행

【기사: 손대홍 회장, 뉴욕】

지난 12월 1일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Double Tree Hilton 호텔에서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손대홍, 미대 79)의 2018년 송년회가 열렸다. 동문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여한 행사는 각 단과대와 동문 선배들의 후원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2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손대홍 회장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동문들의 인사와 대화로 시작된 리셉션으로 5시부터 송년회 1부의 막이 올랐고 6시부터는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김광수(공 72) 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2부 행사는 음대동창회장 이준희(음 95) 동문의 지휘로 교가 제창에 이어 손대홍 뉴욕지역 동창회장(미 79)의 인사가 있었다. 많은 동문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그 동안의 행사와 함께 오늘 송년회도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고 지성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자랑스러운 뉴욕지역 동창회가 앞으로 많은 젊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더욱 훌륭한 동창회로 계속되어가길 바란다는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긴 길을 달려와 참석한 윤상래(수의 62) 미주동창회장의 뉴욕지역 동창회에 바라는 기대와 축하의 인사말이 있었고, 한태진(의 58) 뉴욕지역 동창회 이사장 인사, 손경택(생 57) 골든클럽 회장 격려사가 있었다.

그리고 2018년 이준희(음 95) 음대동창회장의 주도로 처음 연습을 시작한 동문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황소희(음 08) 동문의 피아노



한태진 이사장

반주로 앵콜을 받으며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3곡을 열창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음대 동문 3 테너 공연이 있었는데 김성욱(음 01), 노영한(음 09), 장주훈(음 09) 3명이 한지윤(음 09) 동문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이태리 칸소네 '우정의 노래(Stainsong)', '푸니쿨라 푸니쿨라(Funicui Funicula)', 그리고 귀에 익은 이태리 가곡 '오 나의 태양(O Sole Mio)'에 이어 우리 노래 '향수', '목련화', 앵콜 곡으로 '희망의 나라로'를 불러 참석자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특히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의 바로 앞에서 대화를 나누며 공연을 해주어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윤상래 회장

이어서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위원회가 수여하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 김창수 장학위원장과 장학위원들이 노영한(음대 2014년 졸업), 박윤희(음대 2017년 졸업), 연예슬(음대 2015년 졸업), 황지원(경영대 2013년 졸업)의 유학중인 4인의 동문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시작된 3부에서는 식사에 앞서 한태진(의 58) 이사장, 윤상래(수의 62) 미주동창회장에 이어 참석자 중 최연소 동문인 최민



동문 합창단 공연



장학생 기념촬영

우(공 96) 동문의 건배사가 있었으며 즐거운 대화와 함께 와인을 곁들인 식사가 시작되었다. 학창시절 로커로 활동했던 동창회장 손대홍(미 79)이 준비한 두 곡의 노래를 시작으로, 수차례 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하였던 이진구(생 60) 동문의 하모니카 연주가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4부에서는 참석자 중 최고령인 진봉일(공 50) 동문이 프로페셔널 댄서를 초대하여 함께 아메리칸 탱고와 비엔나 왈츠 등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에게도 볼룸댄스를 지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사회자 김광수(공 72) 동문의 재치 있는 사회로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댄스 타임과 퀴즈 게임을 함께 섞어 다양한 경품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참석자 전원

이 참여한 서바이벌 퀴즈게임은 서울대학교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문제를 QX로 답하는 게임으로 모두가 모교에 대한 역사와 현재를 다시 한번 배워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으며 열정적인 댄스 타임과 함께 퀴즈 정답자에 대한 상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운권 추첨이 있었는데 1등으로 객선석 동문(공 61)이 제공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롯, 한국항공공관 등 다양한 상품이 당첨자들에게 제공되었고 참석자 전원의 기념 촬영을 끝으로 10시에 막을 내렸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동창회 마크가 새겨진 머그컵과 함께 3종의 기념품이 제공되었으며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악수와 포옹으로 아쉬운 이별의 인사를 대신하였다.

Bella Dalton-Fenkl (12th grade)
second place, 2016 sijo competition

【제공: 시카고 세종 문화회】

The Sanctuary

Tiny snow-white egret wading
through the sea near broken rocks—
How can a being so fragile
keep balanced despite the waves?
On the beach, not far from the boardwalk,
there stands only one tough tree.

Taylor Edwards (10th grade)
second place, 2009 Sijo Competition

Secret Song

You ask me what I'm humming; I tell you I'm humming about nothing.
This is untrue because I'm humming about you, all day long.
Who am I to tell you you're "nothing" when you are my song?

미주동창회 홈페이지(www.snuua.org) 메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초 새 메뉴를 선 보입니다.

본 회보를 위해 필진이 보내 온 창작 글이나 기사는 미주동창회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합니다.

북가주 동창회 2018 송년 모임 및 정기 총회 개최

퀴즈 및 장기자랑, Line Dance
등으로 즐거운 만남의 시간

【기사: 객준경 회장,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총동창회(회장 객준경, 법대 75)는 2018 송년 모임 및 정기 총회를 12월 8일 (토)에 Westin Palo Alto Hotel에서 49학번 선배님(이임성 문리대, 한만섭 공대)로부터 2000년대 학번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세대의 동문 및 가족 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박찬호 (자연대 81) 동문의 사회로 2018년도 행사 및 재무보고에 이어 임기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은 민병곤 (공대 65) 이사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으며, 신임 임원으로 이사장 강정

수 (문리대 61), 부회장 최승희 (자연대 81)를 선출하였다. 여흥시간에는 서유리 (음대 02) 동문의 Violin 연주와 노래, 퀴즈 및 장기자랑

과 Line Dance를 함께 하면서 오랜만에 반갑게 만난 동문들이 친목을 돈독히 하고,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2018년도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연말 총회에 참석한 동문들과 인사말 하는 홍혜례 회장 (홍정일 (약대 57) 촬영)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18 총회 및 송년회 개최

130명여 동문 참석, 음악회, 퀴즈, 라인댄스 등 흥겨운 순서 진행

【기사: 홍혜례 회장, 시카고】 시카고지역 동창회(회장 홍혜례 사대 72)의 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9일 저녁 시카고 근교에 소재한 Drury Lane Center(Oakbrook Terr. IL)에서 동문과 가족, 장학금 수혜자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양종윤 (장교) 이소정 (피아노)



라인댄스팀의 아모르 파티 공연

장학생 선발위원회가 선발한 10명의 장학생 (명단별첨)에게 장학금(각 \$1,000)을 수여하였다. 또 35주년 기념 주소록 및 총람을 발간한 2017년 36대 한경진(상대 59)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열창하는 소프라노 심윤지 동문

동 연주는 “역시 서울대”의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하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어 이영우(문리대 66) 동문외 골든클럽 회원 9명의 아모르파티를 공연으로 시작된 라인댄스는 동문들이 함께 흥겹게 추었다. 이어 장영수 (공대 73)동문의 재치있는 년센스 퀴즈, 김훈태, 김정아(자연대 93), 김수현(생활과학대 98)동문가족, 박영규 (농대 57) 동문의 열창으로 흥겨운 송년회가 되었다. 그리고 김수현 동문이 설치한 “사진관”에서 멋진 사진들을 찍었다.

총회는 장영수 (공대 73) 부회장의 진행으로 1년동안의 사업보고, 재무 감사보고 등 동창회 및 산하기관의 활동을 보고가 있었다. 2018년도 수석부회장 (김승주, 간호대 69)의 사업으로, 새로 후보로 추천된 김병윤 (문리대 65) 차기회장 (2019년도)과 장윤일 (공대 60) 차차기회장 (2020년도)을 선출하고, 2018년도 신임 회장단을 인준하였다. 시카고 동창회의 중요한 사업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총회에 이어 김훈태 (사회대 84) 총무의 진행으로 송년회가 있었다.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의 앵콜 무대로 준비된 음악회에서는 소프라노 심윤지 (음대 06) 동문의 가곡 “그대 있음에”와, 아리아 “Vissi darte”는 장내를 압도하였고, 양종윤 (음대 12)의 흥겨운 장교 연주는 동문들을 흥에 넘치게 했다. 이어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이소정, 바이올린 이은영, 첼로 노윤진 동문)의 Liebertango, 고향의 봄

윤상래 미주총동창회 회장님은 일정상 참여치 못하고, 보내온 축하 인사에서, “서울대 동문은 물론 한인사회도 선도하시어 새 세대의 미국의 지도자가 많이 배출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미주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서울대 빼지, 스티커 등 기념품과 김호범(상대 69) 동문이 제작한 장학기금모금 음악회(10월 6일) 실행 녹음 CD도 배포되었다. 홍혜례 회장은 일년간 도와 주신



박영규 (농대 57) 동문 부부 열창



김수현(생활과학과)동문가족의 장기자랑.

임원들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카고 지역의 모든 동문이 “서로 돕는 오누처럼 함께 나아 가자.”고 당부했다.



2018년도 시카고 동창회 장학금 수혜자, 왼쪽부터 홍혜례 회장, 이승원(경영대 87, 장학생 Jean Lee 부) 동문, Matthew Lee, Joyce Park, Alex Lee, 조홍진, 구경희 (장학기금관리 위원장)

◆ 2018년 장학생 명단

공지용 (Univ. of Illinois at Chicago)
김애리나 (Univ. of Southern California)
박다현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심상희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안현정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이지윤 (Indiana Univ. Bloomington)
이주성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이형석 (Northwestern Univ.)
장우제 (Northwestern Univ.)
조홍진 (Univ. of Chicago)

미네소타 동창회, 3M 수석부회장 신학철 (공대 75) 동문 송별 모임



신학철 (공대 75)

【기사: 양한승 총무】 미네소타 동창회는 12월 6일 (목), 3M 수석부회장 신학철(기계 75) 동문을 송별하는 모임을 가졌다. 동창회장 황효숙(사대 65) 동문과 임원진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이 모여 Shoreview에 있는 Wok Cuisine에서 저녁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고 영전을 축하해주는 화기에애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동문회에 크나큰 기여를 한 신동문에게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 동문은 2011년 동창회장 역임을 비롯하여 미네소타 동창회에 물심양면으로 큰 헌신과 목이 되었으며 겸손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젊은 동문들의 롤모델이 되어 주었다. 최근 한

국 LG 화학 CEO로 영전되어 정들었던 미네소타를 떠나게 되었다. 명실공히 신학철 동문은 서울대의 위상을 높이고 동문들의 귀감이 되는 서울대인이다.

신학철 동문은 충북 괴산에서 출생하여 청주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에 1975년에 입학하여 1979년에 졸업하였다. 이후 풍산금속 (1979-1984)을 거쳐 1984년 한국 3M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10년 간 총사한 후 1994년 3M 필리핀 지사장으로 승진되었다. 이어 1997년에 미국 3M 본사 이사가 되었고 1999년 연마제 사업본부 부사장, 2002년 전자재료 사업본부 부사장, 2004년 테이프 접착제 사업본부 부사장, 2005년 Industrial Business Sector 부회장, 2011년 해외사업본부 부회장, 2017년 한국인 최초로 3M의 제2인자인 수석부회장까지 오르는 입지전적인 전문경영인이다.



2012년 대통령 국민포장, 2014년 자랑스런 서울공대인상 등 수상경력을 지녔다. 또한 2012년 KBS 글로벌 성공시대 54회 주인공으로 방영되었고, 2013-2014년 미네소타 한인회 이사장 등 지역 한인사회에 기여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다. 또한 후배들이나 미네소타 한인모임에서 기조연설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박윤수 (문리 48) 미주동창회 초대회장 2번째 시집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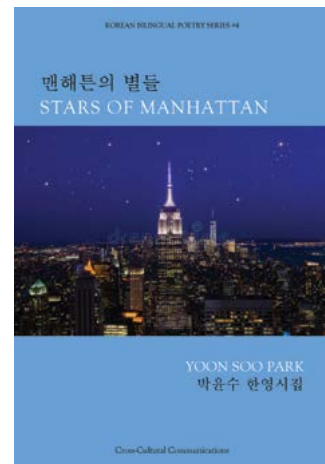
박윤수 (문리 48)

【출처: 미주한국일보】 88세의 연세에 첫 한영시집 ‘실 비치에 뜬 달(2017)’을 출판한 박윤수 동문이 두 번째 시집 ‘맨해튼의 별들(2018)’을 출판했다.

맨해튼의 별들, 허드슨 강변에서, 축복, 세월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눠 쓰여진 책에는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세 딸을 별로 빗대어 표현하여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고, 또한 노년의 삶

감동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다.

11월 9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LG 화학은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에 신학철 3M 수석부 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LG 화학이 최고 경영자(CEO)를 외부에서 영입한 것은 1947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신 부회장 영입에 대해 LG 화학 측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 3M에서 수석부회장까지 오르며 글로벌 사업 운영 역량과 경험은 물론 소재부품 사업 전반에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고,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직문화와 체질



에 대한 성찰을 담아냈다. 캘리포니아 실비치 레저 월드에 거주하는 박 동문은 물리학자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 초빙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 ‘해외문학’ 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되어 데뷔하였다.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부 회장을 맡고 있다. 문의 (703) 310-9339

의 변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LG 화학이 석유화학에서 가까운 미래에 핵심 성장동력이 될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생명과학, 신소재 등 세계적인 혁신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인물이라는 것이다.

뒷줄 왼쪽부터 변정민(88)내외, 양태중(89), 조숙자(86), 용정식(86), 김규성(87), 박상기(98), 변우진(81), 차재호(84), 김형석(92), 양한승(89)총무, 앞줄 왼쪽부터 남세현(67), 이창재(56), 신학철(75), 황효숙(65)회장, 송창원(53), 왕규현(56)동문 내외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www.snuaa.org
email: general@snuaa.org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 978-835-0100 | F 978-353-1882

제16대 (임기 2021. 7 ~ 2023. 6)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는 미주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회원 중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16대 동창회장 (임기 2021. 7 ~ 2023. 6)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6일

서울대 미주동창회 인선위원장 손재욱 (제13대 회장)

연락처: 손재욱 전회장 (267-736-2992) | 윤상래 회장 (978-835-0100) | 신응남 차기회장 (646-523-9606)

제16대 회장 (임기 2021. 7 ~ 2023. 6)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 선거일정: a. 2018년 12월 31일: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b. 2019년 6월 혹은 7월: 전국평의원의회의 (정기총회)에서 투표: 차차기회장 확정
- 근거규정: Nomination Committee (Standing) Rules & Regulations



조지아 지부 동창회 2018 송년회 개최

넌센스 퀴즈, 각 테이블 대항 노래 자랑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행사 진행

【기사: 주지영(문리 66) 회장, 사진: 김재호(공대 80)] 조지아 지부 동창회(회장 주지영)는 2018년 송년(Christmas party)을 지난 12월 2일에 아틀란타에 고향스럽고 아름다운 Saint Ives Golf Club House에서 개최되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단장된 Christmas tree를 둘러싼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예쁜 포장을 한 풍성한 선물들은 우리 모두에게 크리스마스의 정취에 흠뻑 젖게 하였다. 총 7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하여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분위기로 우의를 나누었다.

송년회는 공영식 부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주지영 회장의 환영사로 지난 2년동안 참여하시고 물심 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를 드렸다. 주지영 회장은 2017-2018년에 행사인 총회, 봄, 가을 야유회,

매달 골프모임, 장학 기금 모금 골프대회, 주 소록 제작, 세미나 프로그램 등 동창회를 위하여 임원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임원진 공영식 (사대 79) 부회장, 이일순 (경영대 82) 총무, 이영진 (공대 76) 재무, 김중구 (수의대 73) 감사, 이주경 (상대 69) 골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공영식 부회장겸 장학 위원장은 올해 두번째인 성공적으로 진행된 장학기금 골프 대회로 마련된 기금으로 2019년에도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설명을 해 주었다.

이어 박종유 (공대 59) 목사께서 동문 가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 주셨고, 김용건 (문리 대 48) 박사의 건배로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사와 함께 지난 2년 간 있었던 행사 사진들로



임원진 감사패 증정

구성된 슬라이드 쇼사진과 구성 이영진(공대 76)를 함께 시청했다. 식사 후, 동문들의 멋진 모습을 담은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다. 이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하여 선출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총회전까지 차기회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선출 위원회는 김중구 (수의대 73) 선출 위원장, 임한웅 (공대 60) 강창석 (의대 73), 이영진 (공대 76) 등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강창석 동문(의대 73: 전화장 2015-2016년)의 사회로 본격적인 오락이 시작되었다. 넌센스 퀴즈와 "나도 가수다", "댄싱 킹



교가 합창



사회자 강창석 동문

과 퀴즈, 만담을 번갈아 진행을 했는데 각 테이블 대항 노래와 backup 댄심으로 경연을 하는 모습이 새삼 우리 모두의 앤솔핀 수치를 높이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놀기도 좋아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날 가수왕은 테너의 고음으로 성탄절 노래를 부르신 송용덕 (의대 57) 동문이 차지하였고, 1등, 2등, 3등 테이블에게 선물이 증정되었다. 특히 강창석 동문의 재치있는 진행과 만담으로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시중 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고 주지영 회장은 고별 인사로 지난 2년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하며 2019년부터 시작되는 새 회장단에게도 끊임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즐거운 성탄절과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를 기원한다는 폐회사에 이어 교가를 합창하며 송년회를 마쳤다.



워싱턴주 동창회

2018 송년회 개최

게임과 댄스파티로

즐거운 시간 함께

【기사: 류성렬 회장, 시애틀】

12월 1일 오후 4시부터 2018년 워싱턴 지부 동문 송년회가 성황리에 이명자 동문께서 주선해 주신 워싱턴주 Bellevue에 소재한 Newport Yacht Club에서 열렸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 임원진 및 Mrs.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파티에 필요한 여러 도움을 주셨으며 개회사, 식사 및 총회 후 새로운 게임과 단체춤으로 참석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고 9시에 폐회를 하였습니다.



만찬장 전경

미주동창회 2018년 회고 좌담회 (12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동창회 사무실)

◆윤상래 (수의 62, 미주동창회장)

"지난 1년을 돌아보면 24시간 동창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1년 동안 뭘 했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2월말에는 LA에 갔지요. 그곳 지역 동창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 동창회는 대략 한번 모임을 가졌다 하면 300명에서 350명씩 모이니 까.. 대단하지요.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LA는 날씨가 항상 좋으니가 무슨 행사할 때 날씨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때나 날자 잡아 모이면 된다고 해요. 동창회는 항상 곳은 잘라 피하려고 고심하는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그곳 동문들은 친척이란 인상을 받았습니다.

3월에 브레인 네트워크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나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겠는데 아직 시작 안했으니가 두고 봐야죠. 4월에 또 LA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황인규 부총장하고 발전기금 책임자들이 와서 LA에서 도내이신 한 분들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참여한 거지요.

돌아오자마자 다시 평의원의 준비를 했습니다. 평의원의회의는 아주 잘 끝났어요. 여러 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덕분에 잘 끝났지요. 그렇게 잘된 평의원의회의를 이제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뉴저지 포트리에서 있었던 의과대학 동문회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세미나하고 총회가 있어 참석했지요. 그 다음에 하트랜드 동창회 그러니까 캔ساس에 갔습니다. 제가 캔ساس에 40여년 전에 잠깐 있어본 적이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에 가서 동창회 홈커밍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마치 고향에 온 기분이었지요. 서울대학이 발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봄 처럼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 것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12월에는 뉴욕 동창회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주동창회는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정이지요. 더 잘 하려해도 실행할 수단이 없어요. 웹사이트도 대폭 개편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걱정입니다."

◆김은한 (의대 60)

"저는 동창회 모임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즐거워요. 더욱 이런 소규모 모임은 정감이 있어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의견도 듣고 좋은 이야기기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정수 (공대 71)

"금년도 동창회일 시작은 동창회 후원금 영수증을 발송하는 일부터 말아 시작했습니다. 즉 봉투 만드는 작업을 했지요. 덕분에 어떤 동창들이 어떤 후원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분들에 대한 감사를 느꼈어요.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은 브레인 네트워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기동 박사(공대 53, 전 한국반도체 사장, 한국 반도체 개발 선구자로 알려져 있음)가 한국 또 미국의 산업발전에 기여를 어떻게 했는가를 알리는.. 특히 서울대 동문을

미주동창회 2018년 회고 좌담회

한국 이웃 나라 지식인들에겐 옛부터 십자술(十自述)이라는 것이 있다. 십년 단위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습관이다. 중국 근대 문학 개척자인 호적(胡適)의 사십자술(四十自述) 등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의 오십자술(五十自述), 육십자술(六十自述) 등도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정리한다는 것은 꼭이나 어려운 일이다.

요즘 같이 뉴스가 넘치고 머리에 입력되는 엄청난 정보 때문에 그 일이 올해 일어났는지 작년에 일어났는지 헷갈리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매년 끝날 무렵이면 한 해를 정리하고.. 그것이 쌓이면 후에 전 인생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체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미주동창회는 올 1년을 회고하는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정라: 정태영, 문리 71】

통해서 알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의 열매를 맺기위한 팔로워 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에서 거의 매년 하고 있는 브레인 네트워크가 1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파생되는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 뉴잉글랜드 지역에 싱크 탱크를 만든다든지 하는 일 등이지요.

지난 6월 보스턴에서 개최된 평의원의회의에서는 안내 역할을 맡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국악팀을 윤상래 회장님하고 새벽부터 픽업해서 갈 때까지.. 갈 때도 새벽 비행기라서 일찍 라이드를 주어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평의원의회의에서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평의원 배우자들을 이곳의 역사 유적지가 많은 콩코드 등에 안내하여 미국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보람을 느꼈지요.

그 다음에 평의원의회의에서 강의를 한 이채진 교수(문리 55)를 지역 관광때 안내를 하면서 강의 때 듣지 못한 많은 대화를 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회장 임기 동안 남은 기간에 기여하고 싶었던 분야가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동창회 활성화를 하려면 많은 기부가 있어야 하는데.. 회장님과 함께 먼 곳을 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년도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의원의회의에서 강의를 한 이채진 교수(문리 55)를 지역 관광때 안내를 하면서 강의 때 듣지 못한 많은 대화를 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회장 임기 동안 남은 기간에 기여하고 싶었던 분야가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동창회 활성화를 하려면 많은 기부가 있어야 하는데.. 회장님과 함께 먼 곳을 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년도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태영 (문리 71)

"전 미주동창회 활동이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모르니 제한적인 부분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본 것만 말이지요. 평의원의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석했습니다. 참석해 보니 준비를 잘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전체 일정 중 너무 사무적인 부분에 많은 포션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무슨 보고나 하는 것 말이지요. 사실 동창회라는 것은 일종의 친목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 사무적인 면에 모임 진행을 많이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동문, 모르는 동문을 만나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 하고 헤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참여자들 모두에 이야기 할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참석자들

도 다른 참석자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인 (사대 74)

"그동안엔 아직 할일이 많아 동창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이번에 미주동창회 일을 돕게 되어서 평의원의회의에도 참석하다 보니 미주동창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기간 참가하시는 동문들의 열의에 무척 놀랐습니다.

홍보일을 맡아 여기저기 신문에 부지런히 동창회 이벤트를 알리고 그 결과를 기사로 작성하여 보내는 등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창회 일에 관심도 생기고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보스턴에서 열린 평의원의회의는 마지막 날 회기가 끝나고 회원들이 지역 관광을 갔는데 차량으로 안내를 맡았어요.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오신 이용락(공대 48)전 회장님 부부를 안내했는데 차 안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 기회를 통해 한창 선배이신 분들을 알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그런 대선배이신 분을 알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가지 미주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좀더 기간을 두고 각 지역에 골고루 홍보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회비 문제인데 뉴잉글랜드에서도 회비를 많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아이디어는 뉴잉글랜드 동창회 모임을 할 때 모금 박스를 놔 두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김원영 (미대 81)

"새해 인사 나누지 못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를 회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회보 편집회의에 참석차 뉴욕 보스턴을 한 달에 한번씩 왕래하고 보니 멀게 느껴졌던 길이 이젠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회보 마무리 시기의 긴장과 걱정을 안고 보스턴 가는 길에서 무심히 바라 보았던 사계절의 자연도 큰 위안과 친근함을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창회보 만드는 일을 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일은 그달 회보는 그달 안에 동문이 받아보게 하자는 일이었습니다. 서둘러 한하지만 목표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전자신문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비교적 젊은 동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회보 필진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각 지역에서 회보를 받아보시고 애정이 어린 충고와 조언을 들을 때였습니다. 특히 많은 원로 동문님께서는 회보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시는데, 회보에 대한 애정이 크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필진님과 편집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필진님 몇 분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운 (수의 87)

"미주동창회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1년 6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작년 평의원의회의를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지내고 올 초부터 다시 어떻게 성공적인 회의를 치루어야 할지 마음 속 큰 짐을 안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지난 회기의 임원진들이 많은 부분 같이 준비해 주었지만 올해는 오히려 우리 임원진들이 모든 걸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준비과정도 쉽지 않았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많은 분들이 같은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다는 점입니다. 정말 여러 동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창회라는 조직은 가족으로 치면 여러 세대들이, 거의 4대 5대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대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일을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색깔을 가진 동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마치 먼 친척분들을 만나는 기분이 들고 함께 가족행사를 준비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나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의견들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이 모이면 거기에 힘을 모으고 함께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상하게 우리 동문들에게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전체의 뜻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소수의 의견을 같이 반영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게 우리 동문들의 개성이구나, 개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우리 동문 중에는 참 많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창회는 그러한 개성있는 의견을 통해 기존의 것과는 다른 창의적인 동창회가 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우리 동창회가 동문들의 그러한 잠재력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문들은



서 랑 (의대 63)

2018년이 기울도록 46년 가까이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기기도 하고 한국 뉴스도 인터넷에서 자주 훑어본다.

며칠 전 우연히 한국인의 국가별 지능지수(IQ 아이큐)가 전 세계 1위라는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뜬소문이 아니라,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린(Richard Lynn, 1930~)의 치밀한 연구 논문의 결과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배웠다. 그는 근 50년에 걸쳐 인종별 지능 지수 연구를 해온 고지식하고 직설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비난도 곧잘 받는다.

그의 저서 'Race Differences in Intelligence, 인종간의 지능 차이에 나오는 방대한 연구 내용에 의하면 평균 지능이 가장 높은 수치는

매우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들이 동창회의 일을 맡아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지선 (수의 94)

"지난 한 해 받은 한국이나 미국도, 그리고 우리 동문회도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리더십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리더의 성격과 방향성에 의해 한 나라가, 조직이 그리고 가정의 정체성과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서울대 동문들은 개성이 강하고, 의견도 다양한데, 윤상래 회장님께서서는 비전이 확실하시면서도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본관이 있을 때 잠잠하게도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결국은 원하시는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가시는 선장이었습니다.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놓고 누가 먼저 외투를 벗기는데 성공하나 내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회는 아무래도, 해가 강한 햇빛을 쬔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처럼, 결국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동창회에 깊이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모이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학연이끼기 보다는 인연에 끌려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정한웅 (대학원)

"저는 늦게 합류해 이번이 두 번째 참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원만 서울대를 나왔어요. 연대를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서울대로 가라고 해서였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깐.. 서울대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랄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해 왔

머리 좋은 한국인

107인 홍콩은 국가가 아니라서 106인 한국이 단연 세계 1위가 된다. 2위가 일본으로 105.3위는 104를 획득한 대만. 독일이 102를 뒀고, 중국 100. 미국은 98. 스마트하기로 소문난 이스라엘이 겨우 94.

이쯤 되면 모종의 경쟁심이 치솟는 것이 마치 무슨 국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점수 총계라도 대하는 기분이다. 이 통계가 병적인 우월감이나 열등의식을 조장하면서 국가와 인종들 사이에 격한 감정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이 앞선다. 걱정도 팔자다.

1960년대에 '감성지수(Emotional Quotient, EQ)라는 말이 학계에 떠올랐다. 하버드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Daniel Goleman)이 'EQ'에 대한 책을 1995년에 내놓은 후 더욱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큐가 딱딱하고

는데.. 그래서 서울대라는 것이 큰 압박감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어요. 서울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이 가는 대학교. 지금도 사회에서 어떤 지도급이랄까 리더들이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예요. 사실 저는 그런 게 안 맞았어요. 저는 평범하게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가 그런 뜻이라면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대가 동문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도 아웃리치 해야 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안 계셔요. 우리 까리의 리더가 아니라 좀 더 아웃리치해서 누구든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보도 드릴 수 있고 장학금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동문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주변에 닳고 싶은 분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뿐 아니라 동문들이 닳고 싶은 동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도 손길을 뻗칠 수 있는 동문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으로 참석 동문들이 모두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를 마쳤다. 그러나 올 한해도 뒤편이 해도 윤 회장 배우자이신 김복섭 여사의 노고도 많았다. 회의 때 마다 장소 준비, 식사, 간식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회기가 끝나고 미처 회의를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마음이 항상 낯은일만 남겨놓고 떠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복섭 여사의 코멘트를 들어 보았다.

◆김복섭 여사 (윤상래 회장 부인)

"저는 사실 배우자로서 남편이 동창회 일을 하는 것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리타이어도 안했고.. 그런데 리타이어하고 나니까.. 열심히 하고 또 보람있는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니까 보람이 있는

남성적인 분위기라면 이큐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면목이랄까. 전자가 객관적인 반면 후자에는 어쩔 수 없이 주관적 요소가 개입된다. 사람 머리로 음양론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감성지수는 자신과 상대의 감정을 파악해서 서로 걸맞게 어울리는 능력이다. 교과서적 이해 능력이 아닌 사회적 적응력이 골자를 이룬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이 감성지수가 뛰어난 사람이라니까.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세일즈맨이나 나라 경제와 국가의 이익을 숙지하는 대통령이야말로 탁월한 감성지수의 소유자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아이큐와 이큐가 둘 다 높은 경우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만약 세일즈맨이건 일국의 대통령이건 지능지수와 감성지수 수치가 둘 다 형편없이 낮다면 고객과 그 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될까?

'IQ'는 독일의 심리학자 윌리엄 스텐(William Stern, 1871~1938)이 만들어 낸 독일어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말. 그가 1914년에 내린 'intelligence'의 정의는 이렇다. - 한 개인이 새로운 요구 상황에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즉 인생의 새로운 문제와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신적 적응력. - 그야말로 정신의학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뜨리는 개념이다. 정신질환에 있어서, 아이큐가 높은 환자가 낮은 환자보다 치유와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래는 정선주(간호 68), 백옥자(음대 71)동문 이 글을 보내 좌담회에 참여했다.

◆정선주 (간호 68)

"며칠 후면 새해 2019년이 오고 있다. 작년 12월에 우리 가족 모두가 Florida의 Sanibel and Captiva Islands에서 매서운 미국 동부의 강추위를 맞고 있었는데 벌써 1년 전이다. 그리고 바로 1월 2월을 Down Under Australia and New Zealand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7월은 Italy의 Western Coast에서 Rome에서부터 시작하여 Homer's Odyssey에 나오는 섬 Ponza Island, 무소리니가 감금된 Ponza Island, Aeolian Islands, Sicily and Malta Island 에서 Italy 서부 지리를 다시 배우는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분명 토마토를 심어 놓고 갔는데 Chipmonks가 주인이 없는 사이 내 garden을 망쳐 놓아서 토마토 하나 따 먹을 수 없는 여름이었다. 그리고 11월 우리는 Most Beautiful Coastal Journey를 한 Norway에서 보낸다. Hurtigruten Ship을 타고 Arctic Circle을 지나 Bodo에서는 Keiservarden에 오른다.

베에 탄 승객 중 Expedition한 사람들은 대부분 독일인들 나만 유일한 미국인 이란다. 날씨도 그날은 너무 좋았다. 눈도없고 안개도 없는 너무 아름다운 멀리 Lofoten Islands도 보인다고 한다. 나는 다시 이곳을 찾아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North Cape에 도착한다. 유럽에서 제일 높은 곳 71^ 21' 10" N. Kirkenes 이곳은 러시아 국경이다. Northern lights를 신기하게 보면서. 나는 다시 여름에 Norway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집에 오자마자 Thanksgiving day를 가족들

예후(豫後)가 더 좋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intelligence'는 전인도유럽어로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말 앞에 '중간, 사이'를 뜻하는 'inter'가 붙은 단어다. ('intermission'이 연극이나 영화의 중간 휴식 시간을 뜻하듯이) 결국, 지능이란 삶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모으는 사이사이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지혜와 영감 같은 것이 아닐까?

한국인의 인생에 대한 적응력이 세계 1위라는 연구결과가 황송하고 기쁘다. 게다가 나는 조만간 반 백 년에 육박하는 이민생활 환경에서 술한 수련과 수양을 쌓아오지 않았던가. 그래서 혹시 내 아이큐가 그 사이에 조금 올라간 건 아닐지. *** 시인정신과 의사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과 지내기 위해 DC에 갔다 며칠 전에 왔다. 사람들이 꼭 찬 D. C. Museums도 좋았고 Great Falls National Park은 온통 우리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White House East Wing을 방문하였다. 너무 재미있었던 2018년 감사합니다!"

◆백옥자 (음대 71)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동문 수가 많지 않은 뉴잉글랜드지부에서 말야 회보 발행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걱정은 하지 않았다. 14대 윤상래 회장님의 성품이 의욕적이시고, 은퇴도 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 잘 하시리라 생각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돌아볼 때 과연 꼼꼼하시며, 미리 준비하시는 성품으로 이끌며, 틀림없게 각 자부 탐방으로 협조를 구하고, 차분하게 이끌어 가신다.

회보 구성면에서 짜임새 있고, 웹사이트도 발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임원진들이 그렇게 열심히 협조해 주는 것을 지난 6월에 평의회의 준비를 하면서 놀랐다. 적은 지부라고 못할 것이 없음을 볼 때, 앞으로도 각 지부에서 모두 힘입어 일을 맡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홈커밍데이에는 미주동문과 본국동문이 함께 참여하는 여행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다. 앞으로 더 많은 동문님들이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며 친목이 되리라 본다. 그리고 회보 발행을 위해서 뿌리가 되어 주는 후원금(회비, 업소록, 광고후원 등)을 보내 주시는 동문님 모두께 감사드리고 싶다."

* **참석자:** 윤상래 회장 (수의 62), 김은한 (의대 60), 정선주 (간호 68), 백옥자 (음대 71), 정태영 (문리 71), 이정수 (공대 71), 이영인 (사대 74), 김원영 (미대 81), 이상운 (수의 87), 배지선 (수의 94), 정한웅 (대학원).

across from the hotel.

After unpacking and resting a while, my wife and I went out to the shopping areas (although not for shopping) in nearby modern buildings. I could see that Warsaw is undergoing much new construction to modernize the downtown areas of the city. Most of the new buildings seemed to have glass exteriors supported by stainless steel and bright lighting. All famous fashion brands were seen throughout the shopping malls. Before returning to the hotel, we enjoyed dinner at a sushi restaurant near the hotel and noticed a few Korean dishes on the menu. Maybe the owner is a Korean. Interestingly, all people working at the sushi bar counter were all white Europeans.

The next morning, I swam in the pool on the 43rd floor and enjoyed relaxing in whirlpool and sauna. Because of the muggy air outside the window, I could not see the view of the city as clearly as I was hoping.

One of the good experiences staying at this hotel was the buffet breakfast. Food was fresh, delicious, nutritious and of sufficient variety. I knew I would miss the hotel breakfast after I returned home.

Later in the morning, we took a taxi to see the Old Town section of the city. I took a map and started to navigate using the GPS on my Samsung Galaxy Note. I decided to use global roaming services during this trip for convenience. It was a huge help during this trip, keeping me updated about almost all of my favorite things even on the streets of the foreign countries. It's worth the cost.

Warsaw was almost completely destroyed during World War II, especially by the German army, in order to destroy the Poles and Jews after the Warsaw Uprising near the end of the war. But now the streets and buildings in the Old Town (not downtown areas) have been largely rebuilt to retain the city's original medieval scenes. Most of the buildings were painted in white, light yellow, light pink or light silver with some red brown, gray or green color roofs. The buildings were generally 5 to 6 stories high. Even the old medieval looking defensive walls for two blocks in the center area of the Old Town were rebuilt. I felt as if I was walking in a peaceful and romantic medieval town, in France or Italy or any Mediterranean city on a nice sunny and balmy Saturday.

My wife and I started to stroll from the Old Town Market Place and passed the Palace Square nearby. The wide main street was only for pedestrians and stretched over fifteen blocks with a few plazas between. The buildings on both sides were full of restaurants, cafés, ice cream shops, souvenir shops and some exclusive hotels for tourists.

Tourists were enjoying food and drinking at many colorful al fresco cafés, observing passing tourists, talking and smoking. After walking about ten blocks, we proceeded to the nearby Grand Theater-National Opera House. Although there were no performances scheduled during our trip, we nevertheless wanted to see the building. So we entered the building entrance lobby and took some pictures inside.



After taking some more pictures in front of the Opera House, we headed by a taxi to the Chopin Museum. But I noticed immediately on GPS that the taxi driver was traveling wrong direction rather than straight to the museum. As I didn't have much time to waste before museum's closing, I finally corrected him but gently. One reason I could justify his behavior was that I picked up the taxi that was waiting for customers in front of a luxury hotel for long rides but my ride was just a short distance to the museum. The museum building is a Baroque style building, charming and bright in color, and reflected the sunset of the day when we got there.

The five-story museum houses many of Chopin's original manuscripts and letters and even the last piano he played and is filled with recordings of his music and artifacts. I have been to many composers' museums in Europe, such as Mozart's, Mendelssohn's, Schumann's, Beethoven's, Liszt's and Bach's, etc. But, in my opinion and from my recollection, their content, size, standards and quality are not comparable with those of the Chopin museum. Chopin must be considered a national treasure of Poland. Across from the museum is a huge modern building housing the Chopin Institute. The visit to the museum is considered a must to tourists to Warsaw, if they are interested in music. Regrettably, we didn't have enough time to appreciate all in detail but we really enjoyed it, especially my wife.

I respect the Polish people for taking care to honor the history of Poles, such as Marie Curie who won Nobel Prize twice, Copernicus, Chopin, to name a few.

Tonight, we attended a concert by the Warsaw Philharmonic Orchestra at Warsaw National Philharmonic Hall.

We were so happy to appreciate a concert at the Hall where the prestigious International Chopin Piano Competition is held every five years. The worldly acclaimed Korean pianist Seong-Jin Cho won the gold medal here in 2015. Throughout the concert that night, I could not help thinking about how famous Seong-Jin Cho has become after the winning the gold medal in that historic concert hall. One unfortunate circumstance that night was that the Russian pianist who was scheduled to play a concerto that night was sick and could not play and was not replaced. So we left early after the two symphonic performances and buying several of Seong-Jin Cho's CDs in the hall lobby.

After swimming and breakfast the next morning, we headed toward the New Town section of the city, which is adjacent to the Old Town part. The name, New Town, was given because the area was rebuilt after the Old Town had been rebuilt. But it also looked the same as the Old Town section, with medieval-looking buildings and mostly cobblestone streets. We strolled along the beautiful Vistula river for one hour to enjoy the scenery around the river and hills. Many young people were relaxing on benches and green lawn. The tree leaves in the surrounding area had started changing colors, and the sky was cloudless and blue. There was no wind. We finally walked up a hilly road back to reach the lower part of the Old Town section that we had not seen yesterday. The streets were filled with mostly young people, residents and tourists, who had come out to enjoy a sunny and warm Saturday. What a beautiful scene! I noticed the city-provided shacks, here and there, that were generously giving away free cool water and coffee to the pedestrians.

In summary, during our three-week trip, my wife and I visited London, 4 cities in Germany and Warsaw and attended three operas and three concerts. I feel the people in Europe, especially in Germany, are lucky because even in many medium-sized cities such as Leipzig and Dresden, there are many museums, concert halls and opera houses, small and big, but world class. For this trip, we had to fly to London from JFK because we could not get the nonstop flight to Hamburg from JFK. They were all sold out when we were making booking. We planned this trip only a few days before the trip.

We will leave Warsaw tomorrow for London before heading back to JFK. We plan to relax and spend some time there at the National Gallery at the Trafalgar Square. We have been to London many times and we feel like it being a hometown.

Poland is now the 46th country that my wife and I have visited together. ***



노명호 (공대 61)

콜로라도강, 미 남서부의 젓줄

(Colorado River, Lifeline of
the Southwest)

Colorado River는 우리모두에게 친밀한 이름이다. Grand Canyon과 Hoover Dam의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Colorado River의 멋을 우리모두 이야기에 많이 담아왔다. 하지만 Colorado River가 미남서부의 생존을 가름하는 Lifeline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지난 50여년 간 물에 관한 일을 해오면서 미국의 치수, 특별히 미남서부의 치수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건조하고 수자원이 부족한 미남서부가 어떻게 인구 4,000만명 이상을 Support할까 하는 질문을 여러번 하곤했다. Colorado River는 남서부 7개의 주 (Wyoming, Colorado, Utah, Nevada, Arizona, New Mexico, and California)를 가르며 물을 공급하고 또 Mexico에 얼마간의 물을 내려보내야 한다. 또 Colorado River는 4 백만 acre 이상의 농경지에 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Colorado River는 Mexico 에 도달하기전 California의 Imperial Valley와 Low Desert 에 엄청난 농업 용수와 Golf Course Irrigation Water를 Supply하고 있다.

Colorado River는 미국의 어떤 하천보다 물을 가장많이 Export 하는 하천이다. 그래서 Colorado River는 1,500 년 전부터 Water Right 전쟁을 해왔다. Colorado 강은 Denver



(CO), Salt Lake Valley (UT), Rio Grande Valley and Albuquerque (NM), Cheyenne (WY), 그리고 가장 큰 소비지역인 Southern California, Las Vegas Nevada (NV) 와 Phoenix & Tucson (AZ) 에 Export 하고있다.

Seven Western States (CA, NV, AZ, CO, WY, UT, and NM), US Federal Government, Mexico 그리고 23개의 American Indian Tribes 가 1,450 mile (from Rocky Mountain National Park to Gulf of Mexico)을 흐르는 Colorado River 의 Water Right 을 공유하고있다. Colorado River는 Upper Region (CO, NM, UT, WY) 와 Lower Region (CA, AZ, NV)로 나누어져서 관리되고 있다. Upper Region과 Lower Region의 분계점은 Lake Powell 하류에 위치한 Lee Ferry로 정해있다. 각주에 배당되는 Water Availability는 매년 변동하는 Colorado River 강유량과 Water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정한 Agreement에 따라 결정된다.

Lee Ferry에 Colorado River의 Long-term Annual Average 수량은 15 million acre-feet (AF)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1 AF는 약 325,900 gallons이고 (축구장 하나를 30cm 채우는 양) 두가정이 약 1년 동안 소비하는 양이다. 1922 년 7개주와 연방정부가 Colorado River Compact라는 협정에 동의해 Upper Region

과 Lower Region이 각각 7.5 million AF/year를 배정받았다. 그리고 1944에 1년에 1.5 million AF를 하류로 방류하겠다는 협정을 Mexico 와 맺어 총 16.5 million AF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림이 그려졌다. 협정에 의거 2003년까지 Mexico는 대략 1.5 million AF를 배정받았지만 그이후에는 미국 특히 California와 Arizona 의 소비량이 증가 Mexico로 내려보내는 수량이 점점줄어 Mexico의 항의를 받아왔다. 또 Colorado River는 강이 길어 하류로 갈수록 염분 (Salinity) 이증가한다. 이유는 강물이 Leach 하는 토양의 염분을 흡수하고 또 농경지에서 내보내는 Drainage Water가 염분을 강에 상당량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Mexico 로 내려보내는 Colorado River 물은 수질이 좋지않아 미국은 Yuma, Arizona에 Desalination Plant를 설치해서 염분을 일정량 제거한 후 Mexico로 강물을 내려보낸다.

문제는 Colorado 강의 유량이 점점 줄어들고 지난 20년 동안의 물소비량이 엄청나게 증가

했다는 사실이다. 예를들어 Las Vegas의 지난 50 년 간의 폭발적인 성장은 Colorado River가 있기때문에 가능했다. Colorado River는 1984년에 22 million AF의 유량을 기록했지만 2002년

에는 겨우 4 million AF 밖에 되지않았다. 다행이 Colorado River는 두개의 콘크리수시설(Lake Powell and Lake Mead)이 있어 지금까지 물수급을 감당해왔다. Lake Mead의 수위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꾸준히 EL 1,200 미물다가 2018년에는 EL 1,080 미만으로 무려 120 feet 나 내려갔다. 우리는 지금 Hoover Dam 근처 Lake Mead 호수벽을 보면 수위가 상당히 내려간 것을 쉽게 육안으로도 볼 수있다. 그래서 Las Vegas는 최근 상수 취수시설과 수도관을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다시 건설하는데 \$2 Billion 이상을 소비해야했다.

Colorado River가 가지고 있는 Recreational Value는 상당하다. 일년에 거의 600 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거의 \$30 Billion의 경제효과를 생산한다. Colorado River는 14개의 댐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5개의 댐은 수력발전시설이 있다. 가장 크고 알려진 댐은 Lake Mead 의 Hoover Dam과 Lake Powell의 Glen Canyon 댐이다. 이 두 댐의 발전량은 물론 저수량에 따라 많이 변한다. 예를들어 Hoover Dam의 시설은 2,000 megawatts이 넘지만 요즘은 낮은 저수량 때문에 50% 정도 운영해 평균 1년에 4 Billion megawatts의 전력을 생산해 약 150 만 명의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Glen Canyon 댐도 Hoover Dam의 약 7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만일 Colorado



한정민 (농대 87)

인생학교 평생 재학생

아이들을 모두 대학으로 떠나보내고 1년이 넘어갈 쯤에 '그동안 가정주부와 직장 여성이란 풀타임 2개를 열심히 살아냈으니 이제 잠시 쉬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열정을 다해 일하던 상담소 일 뿐 아니라, 교회 활동과 여러 모임까지 거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들을 그동안 소홀했던 나의 가정, 특히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회복에 더 집중하고, 분주하던 나의 내면을 돌보며 느리게 살려고 애쓰는 지 1년 좀 넘어간다.

중증 사람들이 '쉬는 동안 뭐하며 지내?'라고 물으면 나는 '학교 다녀요'라고 답하곤 했다. 다시 공부 시작했어?'라고 되물으면 '아니요, 인생 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한 훈련 받고 있어야'라고 말하곤 했다. 쉬고 있는 요즘은 그동안 상담대학원과 상담현장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들을 이제는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난 아이들과 남편, 친구와 지인들과의 관계에 직접 적용하며 몸소 체험하는 현장 학습을 하고 있으니 공부 중인 게 분명하다. 아마도 삶을 다 마치고 눈을 감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생 학교' 졸업장을 받는 날까지 계속 인생 학교 재학생일 것이다.

지난 1~2년 동안 삶에 일어난 여러 폭풍우와 지진과 쓰나미 같은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90%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듯하다. 우리가 평소 흔히 경험하는 슬픔, 분노, 절망, 괴로움, 두려움, 외로움, 서운함, 죄책감, 우울함, 좌절감, 기쁨과 행복 등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 외에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손님처럼 왔다가 떠나고 나의 마음을 들어다 놔다 함을 경험했다. 사람이 백척간두 벼랑 끝에 몰리면 지킬박사 속에 숨어있던 하이드리엄, 원초적이고 원색적이고 부끄럽고 추한 여러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믿었던 사람을 모함하거나 친구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우리가 모두 그런 이기적이고 약한 존재임을 배운 아프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혼란함, 배신감, 질투심, 자괴감, 무기력함, 후회감, 모멸감, 수치심, 불신, 패배감, 열등감, 비겁함, 자기비하

River에 설치된 모든 터빈이 돌아가면 4,200 megawatts 이상의 전력이 생산되고 4,200 mega Watts의 전력은 5백만 호 이상의 가정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11월 23일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Climate Report"는 미래록의 기후 변화 (Warming) 로 21 세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자연재해들이 생길 것을 예고하고 있다. 수량은 줄어들고 기후 Warming 으로 인

와 자학 등의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다양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감정들 – 신뢰감, 몽글함, 의협심, 존경심, 베탄, 뿌듯함, 고마움, 감동, 든든함 등을 또한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했다. 나를 집어삼킬 듯한 감정의 쓰나미가 물러올 때면, 공부하고 가르쳤던 '감정 코칭'에 열거된 감정들을 한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려던 노력과 계속적인 훈련이 나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통찰력을 날카롭게 만드는 숫돌처럼 내 속의 복잡미묘한 감정들을 하나씩 쪼개서 새롭게 바라보는 훈련이 되었고, 그 경험은 앞으로 회복된 상담사 (healed healer)로 살아가는 내게 큰 공부가 되었다.

힘들던 시간이 지난 후 비워진 마음에 봄햇살처럼 찾아드는 회복이 고맙다. 폭풍 속을 지날 때는 문득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땅속으로 꺼져가는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지?' 다시 상담할 수 있을까? 아니, 상담은 고사하고 예전의 생기 발랄하고 열정 넘치는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면 불안이 엄습하곤 했다. 그러나 역시 내가 믿었던 휴식과 침,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보내준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지와 따뜻한 격려와 사랑은 결국 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커다란 힘인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람들은 상담하는 것을 남의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이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거라 생각한다. 일부는 맞다. 그러나 내가 믿는 상담은 '그 사람 안에 이미 내재한 그 힘을 믿어주고 묵묵히 함께함'이라 믿는다. 많은 사람들은 우울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좋은 글들을 보내며 '마음을 바꿔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해봐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알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회복을 요구하면 무기력함이 더 증폭되어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절망 속에 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많이 힘들지?'라고 전달하는 따뜻한 눈길과 때로는 묵묵히 지지하고 회복을 다달하지않는 침묵일 때가 있음도 배웠다. 어떤 지인들은 자기 피알 시대에 힘들고 아팠던 시간을 뭐하러 굳이 말해 남들

한 물소비량 증가로 Colorado River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미연방정부와 7개의 주정부는 2012년에 Colorado River 유역 물수급에 관한 연구발표를 했다 (The Colorado River Basin Water Supply and Demand Study). 하지만 그 Study의 해결책이 과연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특별히 Colorado River에 많이 의존하는 California와 Arizona는 Colorado River의 물관리 에 보다 많은 재원을 할당 해야 할 것이다.



박영숙 (사대)

맨하튼

꽃다운 젊은
서양인 백인 여자가
낡은 종이 상자
한 조각에다
"말을 주시오. 나에게"
이렇게 써놓고 꾸그리고
앉아 있다
고개를 꼭 떨어뜨린 채

어수선한 거리
뉴욕 5번가
국립도서관 앞
돌바닥 위에
"돈을 주시오"가
아니요
"말을 주시오" 인데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한마디
말을 건네주지 않는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없는 먼 이웃
동포(同胞)가 무서워

정겨운 말도 참는
옛 친구
하야!
나를 닮은
동지(同志)도
사는가
눈부신 뉴욕
오오, 반가운
공감(共感)의 도시(都市)여
맨하튼

맨하튼 (2)

끓는 해
노을 속으로 빠지고 나니
캄캄한 밤
넘어지는 사람들
다시 일어나라고
켜지는 불빛
가로등인가

기고글 모집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기고문이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제 어느 형태나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동창회는 매월 회보의 1면 톱 기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호에 특별 주제를 정하여 그에 맞는 기사나 기고문을 동문 여러분으로부터 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시간을 내시어 1면 톱기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기사 및 원고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월 호에 맞는 주제에 대한 기고 및 원고를 저술하시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동문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 가는 회보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그룹이多數 多回 지면을 차지하는 그런 회보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회장 윤상래 드림

월별 1면 게재 내용 및 주제

Month	1면 게재 내용	특집 주제
2018년 11월호	모교 홀 커밍 데이 참가기사	홀 커밍 데이 참가기 (소감 및 제안 등)
12월호		올 1년의 회고
2019년 1월호	2019년 신년 설계 및 희망	* 지역 동창회장 신년 인사 (원고 모집) * 동문들의 신년 설계와 희망 (원고 모집) * 과학 기술의 미래에 대한 동문들의 기고 또는 취재 글
2월호		미국을 보는 눈: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에 사시면서 경험하고 느끼신 소회)
3월호		3.1 운동 100주년과 그 의미
4월호		4.19의 의미
5월호		5.16의 의미
6월호		6.25 한국 전쟁 (회상 및 증언 남기기). 한반도 민족 갈등 해소 방안 제언.

보내실 곳: 이메일 news@snuaa.org

이 너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해? 라고 염려 섞인 조언을 해준다. 그러나 어느 누가 삶의 폭풍우와 쓰나미를 피해갈 수 있겠는가? 혹

시라도 오늘 누군가 작년의 나처럼 폭풍 속을 지난다면, 조금만 건디세요. 회복과 치유가 분명 있습니다'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손

에 쥐여주고 함께 견뎌주고 싶다. 바로 그 일 이 인생 학교 졸업장을 받는 날까지 'healed healer'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심리상담사

시카고 동창회, 박종희 (의대 69입학, Dr. Lucy Park) 동문의 미국 생활기

미국 사회에서 전문 의료인 (소아과 의사, 교수)으로서,
한국을 알리는 일 (세종문화회)에도 힘쓰고 있는 자랑스런 서울대인!

미국은 언제 오셨으며, 오게 된 동기와 정착
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의대 다닐 때 의대 학생들 160명 중에 5
명이 여자였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하면서, 여자의사라고
무시당하지 않게 미국에 가서 제 분야에 새
로운 것을 더 배워서 실제로 인정받는 의
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년 인턴 수련을 마치고 1976년에 아무 연
고 없이 무턱대고 가방 하나 들고 뉴욕으로
날라와서 동전을 한중 쥐고 공공전화 박스에
들어가 여기 저기 병원에 인턴실을 신청하였
는데 받아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 때 제가 아는 신부님께서 저를 Ohio
Youngstown에 있는 친구 의사분께 소개
를 해 주시고 비행기 표를 끊어 주셔서 Ohio
Youngstown에 있는 St. Elizabeth Hospital
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 미국생
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후 Baltimore City
Hospital에서 소아과 레지던트 수련을 받
고, 캘리포니아 La Jolla에 있는 Scripps Clinic
and Research Foundation에서 번역학연
구 fellowship, Children's Hospital of Phil-
adelphia에서 번역학/알러지 임상 fellowship
을 마치고 1984년에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School에 Pediatric Allergy, Im-
munology & Pulmonology Division 교수
로 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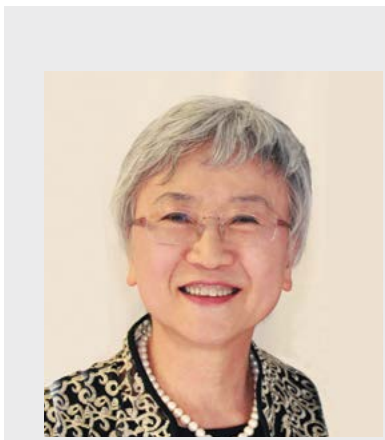
1991년에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는 Univer-
sity of Illinois Chicago Campus로 옮겨 28
년을 Pediatric Allergy, Asthma, Immunol-
ogy & Pulmonology 분야에서 환자도 보
고 의과대학생, 수련의, 일반의사들을 임상
교육과 강의를 맡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
의 활동으로는 1996년에 Illinois Society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단체의
President 로 봉사하였고, 지난 수년동안 UIC
의 Senate member 로 봉사하고, Faculty Ad-
visory Council of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의 member로 봉사해 오고 있습
니다.

- 가족 중에 여러분이 우리 동문이라고 들었
습니다. 서울대 가족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아버지 박흥규 (공대 화공과 45), 여동생 박혜
란 (음대 작곡과 73), 박혜란 남편 김충현 (문
리대 71), 남동생 박종호 (의대 79), 박종호 부
인 오무연 (의대 85), 외삼촌 신승우 (의대 46),
사촌동생 신성식 (의대 74), 신성식 부인 서예
지 (의대 84), 사촌동생 신미영 (음대), 신계영
(간호대) 그리고 저의 남편 김호범 (상대 69)
과 저까지 12명, one dozen입니다.

- 의사로서도 바쁜실 텐데 지난 15년 동안 세
종문화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세종문화회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 말에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저의
딸이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 중국의 멜로



박종희 (의대 69)

박종희(의대 69입) 동문은 시카고지역
동창회에도 많은 봉사를 하였던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세종문화회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주류사회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온 미주 서울대인을 대표할
만한 자랑스런 동문이다. 박 동문의 한
국을 주류사회에 알리는 좋은 비전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미주 동문께 알리
기 위해 어렵게 인터뷰 요청을 했다.

박 동문은 현재 일리노이 대학 의대 교
수이며, 세종문화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편집인 주]

디가 들어있는 곡을 배워 연주하는 것을 듣
고 무슨 곡이냐고 하였더니, 시카고에서 20
년 이상 실시되고 있는 Chinese Fine Arts
Society에서 주관하는 공자탄생기념음악경

의대에 보내는 것이 제게 좋겠다고 충고하셔
서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저는 고등학교때
진로를 바꿔서 의대로 진학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피아노를 좋아하여, 의대 음악반에서도



2016년 시조 워크샵



2018년 세종 음악 경연대회 수상자 연주회 및 시상식

연대회에 나가기 위해 참가자들은 모두 지정
곡으로 중국의 음률이 들어간 곡을 연주하여
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음악선
생님들로부터 한국의 음률을 소개하는 경연
대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겠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듣게 되었
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때는 매
일 피아노만 연주하였고 경연대회에 나가
상도타고, 그때 까지만 해도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이신 저의 외삼촌이 저의 어머니께 저를

피아노 반주, 피아노 트리오들을 연주하였고,
지금도 가끔 피아노를 치는 등, 항상 음악을
즐기고 가까이 하였기에 한국의 음률이 들어
간 곡을 지정곡으로 연주하게 하는 경연대회
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회는 재력과 인력과 능력
이 필요하기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가 “누구
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나서서 실천하고, 언
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실천하라는”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미국 주류사

회에서 오래 봉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
기를 내어, 2003년도에 시카고 서울대 동창
회 연말 총회에서 당시 회장이신 장기남 선
배님께 의견을 타진하였습니다. 장기남 (문
리대 62) 선배님께서서는 이제 본인의 회장 임
기가 끝났으니 2004년 회장을 맡으시는 전
현일 (농대 62) 선배님과 상의하라고 하셔서,
상의한 결과 좋은 의견이라고 적극 찬성하
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창만 (공대 56), 임
이섭 (미대 54), 강영국 (수의대 67), 박영규
(농대 57), 임현재 (의대 59), 정호 (공대 62) 선
배님 등 여러 선배님들이 적극적으로 격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봄 이사회에서 한국의 음
률이 들어가는 지정곡을 연주하는음악경연
대회를 개최할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의논하였고, 조직이 크려면,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산하에 있지 않고, 따로 독립된 조직
이 되어야 범 교민사회와 미국 주류계로 부
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독립된 조직
으로 만들되 시작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서울대 동창회에서 제공해 주기로 이사회에
서 만장 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seed
money를 제공하고 앞으로 매년 재정을 일부
후원을 하고, 이사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새
조직의 이사로 봉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였
습니다.

2004년 8월에 세종문화회라는 이름으로 비
영리 단체로 조직을 창설하고, 전현일 선배
님께서 회장을 맡고, 제가 사무총장을 맡아,
IRS로부터 501(c) 3 비영리 단체로 승인을 받
아서 첫 행사인 제 1회 세종음악경연대회를
2004년에 실시하여, 아리랑 판타지 등 한국
의 음률과 장단을 테마로 하는 지정곡을 연
주하게 한 것이 세종문화회의 시작이었습니
다.

- 세종문화회의 목적은 무엇이고 지난 15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 오고 있는지요?

세종문화회는 한국의 아름다운 고유 문화를
서양의 매개체를 통하여 미국에 소개하여 한
국 문화가 미국 주류 문화안에 한 요소로 뿌
리내려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더욱 다양하
고 풍요롭게 하여 미국에 사는 한국 후예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
화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
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는 세종음악경연대회, 세종작문
경연대회 (수필 부문과 시조 부문)를 매년 개
최하고 2-3년에 한번씩 세종상이라는 이름
으로 세종국제 작곡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수
시로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조교육
강의 및 세미나를 주관 하거나 후원하고 있
으며, 시조 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의 모든 활동은 한국의 고유문화
가 미국의 주류문화 접목되도록 다리를 놓
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열린 제15회 세종음악경연대회에서는 유지
원, 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아노, 바이올린 부문으로 나누어, 경연자가
두 곡을 연주하되 한국의 음률을 테마로 한
지정곡 한 곡과 자유 선택곡 한 곡을 연주하
도록 하여 한국의 전통음악의 음률을 미국
학생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매년 약 100여
명의 음악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되고있는 제14회 세종 작문경연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필 부문과 시조 부문으로 나누
어 대회를 개최합니다. 수필 부문에서는 영
어로 번역된 한국 작가들의 단편 소설을 읽
고 주어진 주제에관해 수필(독후감)을 쓰게
하여 한국 문학과 한국 작가들을 미국 학생
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1,000~1,900편의 수필과 시조
를 받았습니니다.



2016년 시조 워크샵

시조 부문 대회에서는 미국 교사들이 수업시
간에 시조를 가르쳐 학생들이 영어로 시조
를 지어 경연대회에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
습니다. 이 경연대회를 통하여 세종문화회
에서 개발한 시조 교육을 위한 많은 자료들을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 시조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교사들을 위한 시조 교육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4번째 대회를 마친 세종 국제
작곡경연대회는 한국의 전통 음률이나 장단
이 들어간 현대곡을 작곡하여 제출하게 하
여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세계의 작곡가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는 이 작곡경
연대회에 한국계의 작곡가들은 물론, 한국의
전통음악을 모르는 세계 여러 나라의 타인종
작곡가들도 작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세종
문화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음악
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연대회에 참
여한 세계의 여러 작곡가들은 한국의 음률을
경연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접해 보았는데 좋
았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국의 음률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작곡에 이용해 보겠다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또 미국에서 작품을 제출
한 한국계의 작곡가들도 앞으로 한국 음악
을 테마로하는 현대곡을 더욱 많이 써 보겠
다고 전해왔습니다.

- 음악, 시조, 작곡경연대회 등의 분야에서 한
국문화를 주류사회 학생,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우수한 문화를 알
리는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 이제 세종 작문경연대회의 참가자 대상 범
위가 확장되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세종작문경연대회 수필 부문에
Adult Division을 추가하여 30세 이하의 참
가자들의 응모를 받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이
2019년 제 14회 대회 부터 시조부문에 Adult
Division을 추가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기성
작가들도 시조대회에 응모할 수 있게 참가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시조 경연대회와 시조 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시조를 가르치는 학교
와 교사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보며, 언젠
가는 시조도 하이쿠처럼 모든 학생들이 학교
에서 배우고, 또 시조를 즐겨 써볼 날이 오리
라 기대합니다. 미국인들은 초등학교부터 하
이쿠를 배워서 하이쿠를 모르는사람이 없습
니다. 장래에는 시조도 그렇게 널리 미국인
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K-Pop과 김치, K-Drama등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 지는 이 때에



이태상 (문리 55)

소유나 삶이나

매년 연말 연시, 일컬어 할러데이 시즌
(Holiday Season)이 되면 돈 쓸 일이 많아
진다. 물론 돈이란 쓰기 위해 버는 것이다.
하지만 모임, 여행, 선물 등 어디다 쓰는 가
에 따라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나 행복감은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미국 하버드대 재
학생 268명의 삶을 75년간 추적 관찰해 본
결과보고서가 '경험의 성공적인 영광' (Tri-
umphs of Experience: The Men of the
Harvard Grant Study)이란 제목의 책으
로 2012년 처음 출간된 이후 많은 독자들
에게 읽혀오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하버드대 의대 교수 (정
신의학과 전문의) 조지 베일런트(George
Vaillant, 1934~) 는 1966년부터 42년 간
연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복하고 보
람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교훈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 없이는
건강도 사회적인 성공도 아무런 의미
가 없다.

둘째로, 가장 많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다.

K-Pop 외에도 아름다운 한국의 문학창르 가
있음을 알려 한국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
하게 되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의 활동들이 좋은 결실을 보고
있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세종문화회의 기본 활동들인 각 대회와, 시
조세미나 및 워크샵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
에 의해 기획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세종
문화회 이사진이 처음에는 서울대동문 인재
들로 시작하여 활동방향을 정했는데 최근에는
서울대출신 아니신 이사님들도 여러분이
참여하시어, 현회장 오유심씨 포함, 저희활동
에 다양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것도 이우라
고 생각됩니다.

각 대회의 Planning Committee member 들은
거의가 현직 대학 교수님들이거나, 미국 주
류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 연주가, 전문 작
가들로 구성되어,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운영면에서는 Internet 전문가
를 활용하여 top quality의 processing operation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각 분야에 권위있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맡겨, 학교 선생
님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경연대회로 자리매

셋째로, 가난하고 보잘 것 없이 시작하
더라도 인생의 값은 풍파 다 헤쳐나가면서
날로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넷째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
리고 하는 일에 열중하는 데서 얻게 되는
기쁨은 나이 들수록 커진다.

다섯째 끝으로, 살면서 닳치는 도전에 열
마나 잘 대응하는가가 느낄 수 있는 행복
감을 좌우한다.

이상 다섯 가지의 관건은 유지한 자애주의
(narcissism)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성숙
한 배려심과 하는 일에 지극 정성을 다하
는 자긍심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를 내가 82년 동안 살아온 인생경험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한마디로 줄여보고
싶다.

진정한 행복감은 소유가 아니고 삶에서,
그것도 뭔가를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
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물질도 사람도 소유할 수 없고 보살피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사는 것이고 따라서 '네가
'내가 되는 것이라고.

김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세종문화회는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대부분의 경비를 충
당하고 일부 그랜트로 운영하고 있는데, 많
은 후원자님들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매년 활
동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 한국분 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한 점이 성공 요인중
의 하나이군요.

- 끝으로 앞으로의 바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문화회 활동에, 관심있는 많은 젊은
들이 참여하여,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세종
문화회의 활동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
라며, 또 필요한 자원을 위해 많은 후원자님
들께서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어렵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종문화회의 사업은 시카고지역 동문들 뿐
만 아니라, 우리 미주지역 전체 동문 여러분
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신 중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
다.

Web site <https://www.sejongculturalsociety.org/>
연락처: sejong@sejongculturalsociety.org



장수인 (음대 76)

베를린 추억

보스톤에 살면 좋은 점이 있다. 유럽여행이 미 서부에 사는이들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Logan airport를 떠나 7시간 후엔 유럽 교통의 요지인 Frankfurt 공항에 도착하고, 한 시간 비행으로 베를린에 도착한다. 6시간의 시차까지 합치니 현지 아침 8시에 도착해서 하루종일의 덩달은 자유로움이 펼쳐진다. 새 여행지에 도착하면 일단 City tour bus를 타고 City 전체윤곽을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구석 구석 찬찬히 돌아보는 것이 객지에서의 내 맘을 편하게 한다.

독일은 1999년에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겼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큰 발전을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큰 산업체도 없고,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독일이니 복지부담이 세입보다 너무 커 빛이 많다고 한다. 브란덴부르크 Gate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신전을 본따 만든 것이다. 거대한 성문 위에는 승리의 여신이 사륜마차를 이끌고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동상이 멋지게 세워져 있다.

과거에 나폴레옹이 이 사륜마차를 파리의 루브박물관으로 옮겨간 치욕의 역사가 있어, 이후에 나폴레옹을 폐위시킨 기념으로 Paris의 이름을 따 온 parize 광장이 들어섰단다. 이곳은 동서 베를린의 경계로서 장벽이 가로막고 있던 바로 그 자리이다. 지금은 독일 통일고 상징물로서 베를린을 대표하는 웅장하고 거대하며 독일의 힘이 느껴지는 건축물이다. Gate 앞엔 장벽이 무너진 후 과거의 장벽이 있던 선을 따라 검은색 사각형돌들만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웬지 내가 이전에 동독이던 곳에서 있는 것이 좀 안믿어졌다.



유명한 '보리수 아래 (운터 덴 린덴)'라는 이쁜 이름의 거리를 걸으며 보리수가 이렇게 생긴 나무였구나... 웃었다. Schubert의 Lindenbaum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던 예원 중학시절이 생각났다.

베를린하면 아직도 베를린 장벽이 먼저 떠오른다. 1961년부터 세워진 장벽은 총 155 km에 달했고 5m 높이로 고압선과 기관총 초소, 지뢰밭 등으로 무장되어 베를린시를 양분했고 냉전의 상징이 되었다. 장벽을 넘어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5천 75명이고 사살된 사람은 270명, 실패로 체포된 이도 5천 명이 넘었다. 1989년 28년 만에 장벽이 붕괴될 때 동서 베를린의 젊은이들이 실제로 망치를 들고 부셨다고 한다. 부서진 장벽의 조각들이 아직도 기념품가게에 봉지봉지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는게 아이러니했다. 남겨진 장벽 위에는 세계의 artist들이 Freedom, 통일, 평화와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았다. 인간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그림마다 돋보인다.

지금은 도시의 이곳저곳에 한쪽씩씩 상징물로 만 남아있지만 이 벽이 가로막혀 동서를 갈라놓았던, 28년동안 두세상을 단절시키던

이 지형물에 얹힌 인간들의 사연이 절절했겠지. 당연히 분단된 내조국의 38선,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이 생각나고, 현재의 이들 모습이 언젠가 통일된 우리 조국의 모습이 될것지 생각이 깊어진다. 뜻밖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남북관계는 아직도 조심스럽기만하다.

포츠담 광장은 화려한 신도시의 심장부이고, 주요 교통의 교차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의 기대와 오늘의 실패를 가장 잘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단다. 과거 유럽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였던 포츠담 광장은 최첨단의 거대 유리 건물인 소니센터가 들어서 있고 화려한 겉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빈사무실이 즐비하고 썰

아직도 인정 안하는 일본이 본 좀 받아야하는데.. 의사당(Parliament)을 관광하러 갔더니 거의 2시간을 기다리는 간절이다. 줄서서 기다리는동안 판토마임하는 젊은이들이 와서 공연을 하며 푼돈을 받아간다. 꼼짝없이 줄서있어야하는 우리는 재미도 있었지만 그들도 꼼짝못하는 관객을 붙잡고 수일이 짹짹할 것 같았다. 웬지 경비가 보통 삼엄하게 아니다. 거대한 의사당의 바깥쪽은 유리돔 지붕이 멋지더니, 들어가니 그 유리돔을 향해 걸어올라가며 각나라말로 해설이 나오고, 베를린 시가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 한국어 안내는 없었다.

마침 크리스마스 즈음이니 곳곳에 X-mas town이 열리고 있다. 특별한 crafts 들이 눈을 즐겁게 해주는 market place로서 눈썰매장과 스케이트링크, 수많은 전통음식 포장마차들이 즐비하다. 뜨거운 와인을 마시며 흥겨운 인파에 밀려 성탄 음악 속에 걷다보니 미국에서보다 더욱 연발 홀리데이를 만끽한다. 길거리 음식테트로 들어가니 긴 테이블에서 서로 처음만난 이들이 담소하고 깔깔대며 유쾌하게 맥주를 마신다. 큰 규모의 성탄절 페스티벌이랄까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속에서 베를린의 성탄절을 맛 본다.

은 남아 있는 옛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멋을 보인다. 건물 하나하나가 다양한 조형미와 창조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새로와 그야말로 건축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장소라는 말이 이해가 갔다. 옛교회 하나는 건물 전체를 유리곽으로 완전히 씌워 보조를 해놓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참으로 이쁘게 보인다. 거의 부서진 건물들도 과거를 잊지않기 위해 폐허가 된채로 초현대도시이곳 저곳에 서 있다. 자꾸만 새 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한국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사실,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마다 '그곳은 어땠더라'라고 정의내리고 다른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창반이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이기에 조심해야 한다. 여행객으로 결단 잠깐 들여다보는 것이니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맛보기는 불가능하다. 난 아줌마로서 관심 갖는 부분이 여기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물가는 비싼가, 과일 맛은 다른가? 물은 어떤가? 등 사소한 것들이다. 그래서 여행지의 grocery store는 꼭 둘러보는 아줌마이다.

Shopping street인 Friedrich strass를 걸어보았다. 멋진 물건들로 가득찬 거리를 eye shopping 만 하며 걷는 맛을 아는가? 내 나이부터는 아무 것도 사면 안된다. 짐을 늘이면 절대 안된다를 되뇌이며 걷는다. 유럽의 fashion 감각은 특별나다. 그들의 색다른 안목과 스타일이 멋져서 눈이 휘둥그레 해지지만, 미국에선 입고 갈 곳도 없으니 그림의 떡이다. 지나쳐가는 독일인들은 하나같이 잘입고 늘씬하니 잘도 생겼다. 그러나 영화에서 본 독일군 장교들이 악역에도 불구하고 매번 멋있었나 보다.

내가 묵었던 Adlon Hotel은 브란덴부르크 Gate 바로 앞에 있다. Travel Channel에서도 나오던 유명 호텔이다. 이전엔 동독 side에 있어서 거의 폐허가 되었지만 장벽이 무너진 후 재건하여 옛 위용을 회복했다. 영국여왕과 마이클잭슨이 묵었던 호텔이라니 더 멋있어 보인다. 하긴 하루 세번 방 점검하고 최고급 초코렛 디저트를 매번 준비해 놓는데 감동 안받을 수 없지않은가! 떠나올 때는 호텔에서 멋진 포장이 된 box를 주길래 너무 좋아하며 열었더니 호텔의 역사와 사진이 담겨있는 사전만큼 두꺼운 책자였다. 잠깐 읽어보니, 러시아 수용소에 끌려가 필수적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은 상숙자, 호텔정문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아내 등의 이 호텔 가문의 비극적 story로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식사는 거리의 Brewery에서 간단히 하곤 했다. 독일의 전통주점은 길고 긴 테이블에 아무나 계속 밀고 들어가 앉아, 전통 의상을 입은 금발의 아가씨들이 하염없이 날라오는 생맥주를 마시는 재미다. 족발튀김(Pig knuckle)과 갑자기 슈베르트의 가곡, Die Forelle(송아)가 생각나서 Fried Trout를 시켰다. 맛이 훌륭했다. 기분 좋아진 남편 할, "이맛에 한국사람들이 돼지껍질을 먹나보다"고 했다. 족발한 개가 어찌나 큰지 큰 접시에 꽂차니 돌리서 한 개를 못 끝냈다. 세계 어느곳을 가도 한국인은 자기 입 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내는 것 같다. 그러나 김치대신 크라우트를 씹으며 족발엔 역시 김치 생각이 간절했다.

나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는 밤, 혼자 우산쓰고 포츠담 광장까지 걸어갔다. 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뜨거운 와인 글뤽바인(Glukwein)한 잔을 마시며 커다란 흰소시지를 씹었다. 뜨거운



김광현 (미대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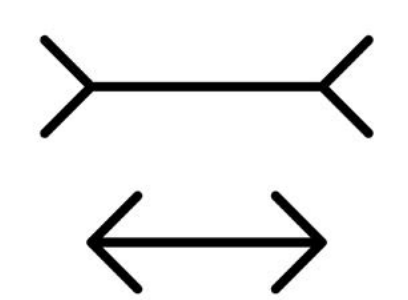
착시(Visual Illusion)의

규정

조형성을 갖던 안 갖던 여러가지 시각적 물체의 형태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과 뇌 시각에 의해 특징지어 지는 착각적 원인을 이해하는 일이 '착시'라 한다. 즉, 우리의 사고와는 서로 상이하게 표현 되기도 하는 조형상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 변형되는 원리로 표현해 큰 혼란을 갖도록 다른 형태를 창조토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착시의 구분을 '리처드 그레고리(Richard Gregory)'는 3가지의 주된 부분으로 규정하였다.

첫째는 물리적 착시 (Physical Visual Illusion) 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거나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또는 기하학이나 원근법 및 각종 채색과 패턴을 가해 착각의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예를 들면 물 잔에 꽂힌 스트로우 (Straw)는 늘 구부러짐으로 보여진다.



<그림 1>

즉,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만든 현상은 아닌 것이다. '뮐러 라이어'(Muller Lien)의 그림 1의 두 형태의 두 선은 나란히 놓여 있어 각 선의 끝엔 그방향이 서로 다른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각 선의 끝의 두 수직선은 같은 길이인데 두 직선 길이는 뿔 것의 직선이 아랫 것 보다 길어 보이나 사실은 둘의 길이는 서로 똑 같다. 뇌의 해석 과정에서 먼 것과 가까운 것의 습관성이 늘 잘못 판단해 왔기 때문이다.

운 와인 한잔이 어찌나 큰 컵인지 거나하게 취해 비 속을 걸어왔다. 겨우 \$5 정도로 저녁을 때운 운치있는 밤이었다. 경찰국가라는 말답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차가 한대도 없는데도 절대 빨간불에 걸린차는 사람이 없었다. 내 셀폰의 울림도 친구도 없다. 이렇게 완전한 휴가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행사를 끝내고 막바로 떠나온 여행이라 마음이 홀가분하다. 음악회의 준비과정

통일된 기법 원리를 가지고 있다. 즉, 모호함(Ambiguities), 뒤틀림 (Distortions), 역설성 (Paradox), 허구성 (Fictions), 혼란성 (Confusion), 숨기기 (Hide), 해학성 (Humor) 및 운동성 (Movement) 등을 갖는다.

한편 가현성 착시(Apparent Visual Illusion)가 있는데 영화처럼 정지된 영상을 연속해서 보여주면 연결성의 동작을 보여주는 착시로 현재 영상예술 분야에서 애니메이션(Animation)으로 많이 제작 및 활용되는 착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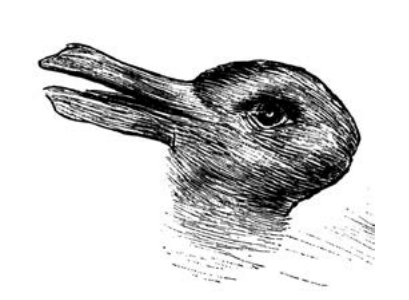
<그림 4>
한구루의 나무와 인지하기 어려운 두얼굴이 있다. 즉, 한구루 나무는 검정색 나무 밑부분의 '시루알'으로 된 현색이 두 얼굴로 보인다.

착시원리의 발견은 '게슈탈트' 심리학 (Gestalt Psychology)에서 찾을 수 있는데 커트 카프카 (Kurt Koffka)는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부분보다 먼저 전체가 인지된다는 것이다. 또 사람들의 눈은 제일 먼저



<그림 2>
컵은 둥글게 만들었지 컵위의 그림의 패턴만 변화를 주면 그 형태는 시각적으로 달라지게 보인다.

셋째는 인지적 착시(Cognitive Visual Illusion)이다. 현상은 무의식의 영향과 이미 널리 알려진 결과나 눈에 익은 형태 등에서 볼 수 있으며 펍 역설적이어서 때로는 혐오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초현실주의나 미신적 영역에 가까운 주제들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3>
오리, 토끼의 그림 중 오른쪽을 보면 토끼로, 왼쪽을 보면 오리로 보인다.

인지적 착각은 숨은 그림의 찾기, 또는 현대 코믹한 만화 등과 현대 서양화 작가들의 한 화풍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이들 세가지 착시 영역의 구분에는 몇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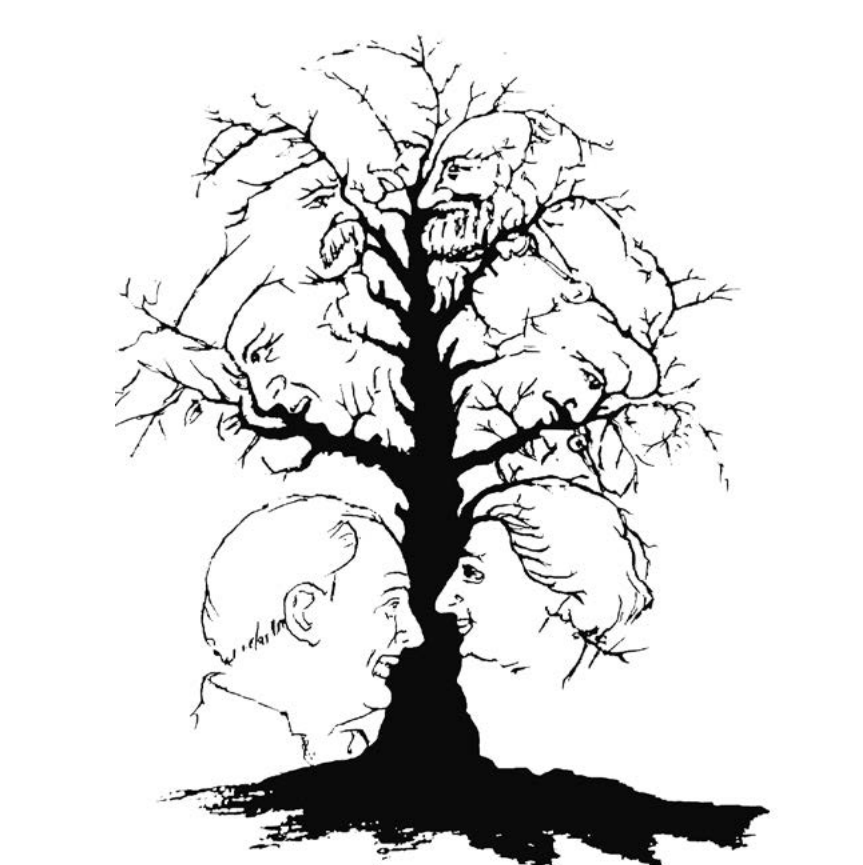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그 다음으로 부분적인 것으로 이동하게 되며, 또 모호하거나 복잡한 이미지를 가능한 단순한 형태로 인지하려고 하며 인지적 착시는 명료하거나 정돈되지 못한 형태의 인식으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정답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림 5>
Painterly optical illusions by Oleg Shuplyak 두 노인부부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각각의 얼굴에서 숨은 그림을 찾게 된다.

현대사회에서의 인지적 착시의 응용은 각종 조형적 분야의 기법을 개발하고 건축과 사회과학과 공학 영역에서 활용되어 이 인지적 착시는 '두뇌 씹셈이(Brain tease)'로 지능을 많이 개발시키기도 하지만 '숨은 그림 찾기나' '마술처럼 허구성과 혼란성을 주기도 하며 생리적 착시는 밝는 빛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잔상 같은 현상을 갖게도 된다. *

참고;
<https://ko.wikipedia.org>
<https://beautinaru.tistory.com>
www.merriam-webster.com



<그림 6> 한구루 나무 속에 몇 개의 얼굴?

도를 해볼까나? 아들내미와는 이런얘기를 나눠야겠다? 등등... 코 앞의 일에서 잠시 떨어지고 흥미진진해 진다. 밤늦게까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삶의 생기가 난다. 힘든 하루종일 미팅으로 어깨쳐져 돌아오는 남편이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타지에서 말 통통하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용감하게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는 모습에 오랜만에 든든한 배우자로서 새롭게 보여 다시 멋진 남편을 발견하는 것이다.



제니퍼 손

워싱턴주 (시애틀)
2018 10월 SNU Forum

유산 상속에 관한 법적인 문제들

Estate Planning 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흔히 Estate planning (유산 상속관리), Living Trust (생전신탁), Family Trust (가족신탁), Will (유언장)등의 용어를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듣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의 노력으로 힘들게 모아 놓은 재산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어떻게 유지를 해야하는 것인가? 또, 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지는가?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세금 문제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Marilyn Monroe는 마약중독으로 36세의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유언장에 재산의 대부분을 그녀의 연기 코치에게 남겼습니다. 그 연기코치가 잠시 그 재산을 관리하다, 그분이 사망한 후, 결국 그의 3번째 배우자가 다 물려 받았다고 합니다. Marilyn Monroe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자에게 자기의 재산이 상속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유명한 guitarist였던 Jimi Hendrix도 2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고, 젊은 나이에 유언장 없이 세상을 뜨면서 그의 전 재산이 아버지께 상속 뒀습니다. 그 아버지가 2002년에 돌아가시면서 그의 입양된 의붓딸에게 상속을 하고 Jimi Hendrix의 친 형제에게 아무 것도 상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Jimi Hendrix가 사망한지 30년이 지난 후에 가족 간에 정말 길고 비싼 소송이 있었습니다.

유명인들의 이야기 같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에게 상속을 하셨는데, 그 자녀에게 사고가 있거나, 자녀가 이혼을 해서, 상속된 재산이 자녀의 배우자였던 사위나 며느리에 갈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새 배우자나 새 배우자들의 자녀들에게 갈 수도 있는 등,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재산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미리 계획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간 원치 않은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부모-자식 간에, 형제-자매 간에, 상속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위의 예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 결국 상속 계획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봅니다. 내 재산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가게 하고, 피할 수 있는 세금은 최대한, 가족 간의 분쟁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상속 계획의 주 목적들이라고 봅니다.

상속계획이 없으면, 자산에 대한 control 이 없어지고, 재산 관리와 분배를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에 맡겨야 합니다.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워싱턴 주의 경우, commu-

nity property는 모두 생존 배우자에게 가고, separate property 는, 자녀가 있을 경우, 반은 생존배우자, 반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가 없을 경우, 3/4이 생존 배우자에게, 그리고 1/4은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갑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community property는 모두 생존 배우자에게 가고, separate property는, 자녀가 한명이거나, 자녀는 없지만 생존한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1/2은 생존배우자에게, 1/2은 생존자녀나 생존부모님들에게 상속되고,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생존자녀가 한명이고 사망한 자녀의 생존 자녀들이 있거나, 2명 이상의 사망한 자녀들이 남긴 자녀들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 2/3이 상속되고 나머지 1/3이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Community property 라고 해도, 모두 생존배우자에게 주고 싶지 않고, 특정한 재산은 큰 아들이나 막내딸에게 주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하시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separate property 라고 해도 모두 생존배우자에게 주고 싶을 수도 있는 등, 원하시는 것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Estate Planning의 기본적인 서류들

이런 상황들을 미리 계획하는 상속계획의 서류들로 기본적으로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 재정적 위임장, 의료관련 위임장, 그리고 사전 의료 의향서가 있습니다. 유언장은 유고시의 바램을 적은 서류이고, 주마다 유언장에 관한 법적조건들이 다릅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 아무리 구두로 유언을 남기셨다 해도, 증인 2명 앞에서 서명한 유서가 없으면 무효합니다.

위임장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이 쇠퇴하여 본인의 재정적인 일들이나 건강관련된 일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때, 그런 권한을 대리인이 대신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지만,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흔히 재정적 위임장과 의료관련 위임장 두개로 나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이 안좋아서 위임장이 필요하신 상황이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capacity가 없다고 간주되어, 그때 위임장을 새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법적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셨는데, 위임장이 없으시면, 가족분들이 guardianship 이라는 길고 비싼 법정 절차를 걸쳐 대리인 임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Guardianship 이라는 법정절차 자체도 시간이 많이 들고 비싼 절차이지만, 그런 법정 절차를 통해 임명된 대리인은 매해 법원에 보고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건강하실때 위임장을 미리 해

놓으시면, 이런 과정없이, 믿고 원하시는 분을 대리인으로 임명해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 의향서는 흔히 living will 이라고도 불리고, 사고가 생기거나 수술이 잘못되어 완전 코마 상태나 식물인간이 되는 불상사가 생겼을때, 영양과 수분을 계속 공급받고 싶으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뺏고 세상을 떠나길 원하시는 지에 대한 바램을 미리 적어 놓는 서류입니다.

Florida 주의 유명한 Terri Schiavo case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Terri Schiavo 라는 여자가 1990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안되어 2년 반 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가, 결국 그 이후로 한 6년 간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쓰러진지 8년 만인 1998년에 남편은 모든 걸 뺏고 보내길 원했고, 그녀의 부모들은 계속 명을 연장시켜 주길 원해, 결국 그 case가 법정까지 가서 한 7년 간의 법정 싸움끝에 결국 2005년에 tube를 뺏게 되었고, Terri Schiavo는 그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Living will은 미리 본인의 바램을 글로 적어 놓으므로 해서, 만일 식물인간이 되는불상사가 생겨 가족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가족들이 그 결정을 좀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류라고 봅니다. 리빙트러스트는 probate 이라는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Probate은 유언 검증 절차로, 법정 관할 아래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하고, final bill 들과 세금 등을 지불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5개월의시간이 걸리고, 유언장을 비롯해 probate 과정 동안 법원에 등록되는 모든 서류는 public record 가 됩니다. Probate은 주마다 법이 다르고, 타주에 부동산이 있는 분들의 경우,부동산이 있는 주마다 probate을 따로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probate이 비싸고 오래걸리기로 유명하여, \$150,000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분들은 리빙트러스트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워싱턴주는 비교적 probate이 복잡하지 않고 법정의 관여가 별로 없는 주이긴 하지만, 타주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 주마다 따로 probate 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있고 모든 것이 공개되는 환경에서 재산을 상속해야 하고, 법원 관할하에 해야 한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이런 probate 과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리빙트러스트를세우셔도, 재산에 대한 권리엔 변화가 없습니다. 세금 보고도, 살아계신 동안은, 리빙트러스트의 세금을 모두 개인 세금 보고에 하시고, 세금 혜택 등도 다 claim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상속세는 유고시, 재산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목적이 달라, 소유하고 계신 재산 형태에 따라, 가족관계에 따라,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상태나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거나, 그런 변화가 없더라도 한 5년에서 7년에 한번씩 상속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update 하실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qualified domestic trust라는 트러스트를 통해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일년에 \$15,000씩 증여세 보고 할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병원에 대신 직접 내주시는 학비나 병원비는 증여세에서 면제되는 증여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 거주자도 아닌 분들의 경우, 미국 밖에 있는 재산과 미국 내에 있는 무형자산은 상속세 계산하는 재산에 포함이 안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나서 9개월 이내로 보고를 하셔야 하고 상속세도 내셔야 합니다.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돈을 부동산 같이 현금화하기 힘든 곳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의 경우, 돌아가시고 9개월이내로 세금을 낼 현금이 생기려면 갑자기 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도 미리 준비 하시면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상속세의 경우, 2002년에 상속세 공제액이 \$1 million 에 최고세율이 50%였고, 차차 상속세 공제액과 세율이 바뀌어, 2011년 부터 \$5 million 대로 공제액이 올랐다가, Trump 정권이 들어서고 올해 부터 두배로 뛰여, 개인당 \$11.18 million 까지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상속세법은 지난 15년 만 봐도, 공제액이 무려 10 배나 변동이 있었을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많은 변동이 있는 세법입니다.

그외,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상속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state tax 를 따로 부과하는 주들로 Connecticut, Hawaii, Illinois, Maine, Massachusetts, Minnesota, New York, Oregon, Rhode Island, Vermont, Washington, Washington D.C.가 있고, inheritance tax를 부과하는 주들로 Iowa, Kentucky, Nebraska, New Jersey , Pennsylvania 주들이 있으며, Maryland 의 경우 estate tax 와 inheritance tax 를 둘 다 부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정부 상속세 공제액은 연방정부의 상속세 공제액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 거주자도 아닌 분들의 경우, 상속세 공제액이 6만불 밖에 안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은 물론이고, 미국 회사의 주식도 포함이 됩니다. 즉, 미국에 한 발자국도 안 들으신 분이라도, 미국 회사의 주식 사시는 분들의 경우, 그 주식을 상속하시게 되면 미국에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부부간 상속시, 흔히 family trust (혹은 AB trust, credit shelter trust)라고 불리는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주정부 상속세 공제액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절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도 있겠지만, 상속된 재산이 원치 않는 분들에게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이점들도 있습니다.

그 외, 절세하시면서, 증여나 상속하실 수 있는 장치들은 무궁무진히 많습니다. 희망하시는 목적에 따라, 소유하고 계신 재산 형태에 따라, 가족관계에 따라,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상태나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거나, 그런 변화가 없더라도 한 5년에서 7년에 한번씩 상속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update 하실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원택 (의대 65)

단풍여행을 다녀왔다

뉴욕을 떠나 뉴포트, 보스턴, 바 하버,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New Scotland) 등 new 자가 많은 지방을 둘러 보았다. 뉴 잉글랜드는 건물로 지은이의 막내딸이 물려받았다가 1948년 \$1에 군 보존단체에 입대한 후 1972년에 36만 5천 불에 팔아 버렸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에 1억1천2백만 불로 사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대리석 집'은 50만 평방 피트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집으로 지은이가 아내에게 주었다가 그녀가 이혼, 재혼, 망부의 과정을 거친 후 1932년에 타인에게 판 것을 1963년 그녀의 막내아들이 보태준 돈으로 군 보존단체가 사들였다.

광고회사들이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best나 free를 적어놓고 단언 new였다. 어떤 상황이 구태의연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타개책으로 '새로운 시대','새로운 물결','새로운 경제','새로운 정책','새로운 전선' 등의 슬로건을 들고나온다. 남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여자도 예쁘거나 착한 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여자라고 한다. 처녀라면 더할 나위도 없고.... 미국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old란 말을 싫어한다. 오래된 것 외에 늙은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탄 배는 14만 톤짜리 프린세스 리갈 호로 만든 지 3년밖에 안 된 뿔까번쩍한 신병이라서 그런지 5천 명 만산이었다. 브루클린 선착장에서 본 맨해튼은 장엄하였고 우뚝 솟은 자유의 여신상은 어서 오란 듯 손을 높이 들고 있었으며 이민 보따리를 풀어 놓았던 엘리스섬은 아담하고 정겹게 보였다. 이곳은 1626년 네덜란드 이민들이 들어와서 뉴 암스테르담이라 이름 짓고 정착하려다 영국세력에 밀려 1664년 뉴욕으로 이름이 바뀐 곳으로 금융예술기술면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모토로 삼아왔다.

새로운 항구란 이름을 가진 여러 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미국 로드아일랜드 남동부에 있는 항구도시인데 이곳은 옛 미국 부자들의 별장이 해변을 따라 곳곳에 들어서 있다. 그중에서 코넬리우스 밴더빌트 1세의 장손이 1885년에 땅을 사서 1893~95년에 걸쳐 지은 '방파제'는 높이 70개가 되는데 대저택이며 특히 하인들의 작업장이었던 지하실이 볼만하다. 그의 아우 윌리엄 키삼은 형보다 더 건강이 좋은 곳에 1888~92년 사이에 백악관 모양을 본뜬 순 '대리석 집'을 지었는데 실내를 온통 금박으로 도배해 놨다. 이곳에는 바닷바람을 쐬면서 차를 마시는 중국식 정자도 있어서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신대륙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번 소위 '줄부'들이 유럽의 귀족들한테 뽐내려고 다투어 지어 놓은 휘황찬란한 '오두막집'들도 거의 다음 대를 넘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늘어가는 미국

사라져 버렸나니 부자가 삼 대 가기 어렵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방파제'는 백금을 입힌 나뭇잎 무늬로 만든 벽 판이 붙은 '아침방'과 2 ½층 높이의 대연회장을 자랑하는 건물로 지은이의 막내딸이 물려받았다가 1948년 \$1에 군 보존단체에 입대한 후 1972년에 36만 5천 불에 팔아 버렸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에 1억1천2백만 불로 사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대리석 집'은 50만 평방 피트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집으로 지은이가 아내에게 주었다가 그녀가 이혼, 재혼, 망부의 과정을 거친 후 1932년에 타인에게 판 것을 1963년 그녀의 막내아들이 보태준 돈으로 군 보존단체가 사들였다.



뉴포트에는 왕년에 막강한 해군기지가 있었으나 전장이 유럽에서 아시아중동으로 바뀌면서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고 요트 놀이 등 여름 휴양지로도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날씨가 따뜻한 플로리다나 남가주 등지로 많이 빠져나갔다. 구글로 뉴 포트를 검색하려면 자주 남가주의 뉴 포트 비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알만하다.

영국의 보스턴 지방에서 온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보스턴은 뉴 잉글랜드의 요람이며 미국독립 전쟁의 발원지이다. 독립전쟁의 시작을 이곳에서 일어난 '대학살'이라고 하나 이는 선동가들이 붙인 이름이고 50~60명의 '폭도'들이 영국군 보초소를 습격하는 마당에서 1개 분대 정도의 병력이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발포해서 3명이 죽고 8명이 부상 당했다가 그중 2명이 나중에 죽은 '조그만 사건'이었다. '티 파티'라는 것도 차 세를 3% 정도로 낮춰주었는데도 세금이 안 걸히자 파산에 직면한 동인도 회사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힘든 소매상 대신 몇몇 도매상에게 독점권을 주려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꾸민 연극에 불과하다. 하긴, 이런 사건들이 없었더라도 독립운동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으니까 보스

턴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 다만 보스턴에 모사꾼들이 많이 몰려 있었을 뿐이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온 불법체류자가 2014년 캘리포니아 경관 2명을 쏜 죽인 사건을 들춰내면서 마치 모든 불법 이민자가 살인범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을 보니까 정치가=선동가라는 말에 실감이 간다.

보스턴의 명물은 '시장 바둑'으로 이곳은 그동안 '막자판'으로 변해서 세계 각국의 음식이 즐비한데 아쉽게도 아직 한국의 불고깃집은 없는 것 같았다. 본래부터 있던 농이나 굴러들여온 농이나 먹어야 사는 것은 정한 이치 일진데 미국농들 지 혼자 배타지게 먹고 채 하려고 냄세 나는 불고깃을 못 굽게 만들어 놓았는지 누가 알겠는가. 사실 먹거리가 미국처럼 많고 다양한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다. 또한 미국만큼 동보가 많은 나라도 없다.

그다음 '프리덤 트레일'이라고 해서 붉은 벽돌을 두 줄로 연결시켜놓은 선을 따라 약 2마일의 보도를 걸어보면 대부분의 역사적 지형지물을 섭렵할 수 있다. 남쪽 끝에 있는 50에이커짜리 미국 최초의 공원 '보스턴 광장 한가운데' '개구리 연못'이 있는데 이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심심해서 죽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남이 하면 '폭력'이고 자기가 하면 '자유'라고 한다.

비용사용 간에 지진이 난 것처럼 배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선내방송으로 선장의 침통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심사숙고한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단다. 오늘은 바 하버에 내리지 않고 진중일 바다에 떠 있기로 ~. 나는 원래 잔돌이라 크루즈 배를 탈 때 항상 값이 제일 싼 배의 아래층에 있는 발코니가 없는 내실을 선택한다. 창이 있어봤자 바깥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감방 같은 곳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측은하게 생각하지만, 이날은 고층의 발코니가 있는 방에 들었던 친구들이 배가 흔들리는 통에 배 밑이 보이는 것을 보고 싼 게 다 비지떡이 아니라는 것을 알렷다. 바 하버는 회강암 암벽이 조화를 이룬 아카디아 공원의 숲으로 싸여 있다는데 오번 단풍 관광은 광풍 광광이 되어 버렸다. 이곳은 오래 된덕이 긴 막대기 같이 방파제를 이루고 있어서 bar(모래톱) 항구라고 하나 수심이 얕아 tender boat(보츠잔)을 사용해서 하선해야 하는 곳이다. 배에서 선장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우리 친구 하나는 겨우 요트 한 대 거느리는 주재에 e-mail 주소에 captain이란 단어를 집어넣고 우쭐대고 다닌다.

타이태닉호가 빙산을 만났을 때 선장이 배의 배로 받지 않고 머리로 정면충돌을 했더라면 훨씬 인명피해를 줄였을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배 머리의 기관실 등과 선실들 간에는 칸막이가 있지만, 중간의 선실들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 쳐들여온 건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선장이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선 자기가 살아야 승객들의 구출작업을 지휘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그랬는지는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의 몫이다.

바 하버에서는 뉴포트와 마찬가지로 앰스터, 록펠러, 밴더빌트, 카네기 등 '금박시대'에 미국에서 방귀캐나 똥된 양반들의 수십 개의 여름 별장들이 있었다는데 그중에 몇개나 남아 있는지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국경을 넘어 세인트 존의 '깊은 해협'에 배를 댄 후 12명이 주간 관광을 하려고 선착장에 나와 있는 현지 여행사들과 흥정을 벌였다. 크루즈 이곳에서는 단체 해변 탐험을 만나질에 1인당 \$100 정도 받는데 현지 안내자들은 6인승 차 한 대를 시간당 \$60까지 깎아서 '반값'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제일 큰 곳으로 대서양의 거친 물결이 물러들어 바닷물이 하루에 무려 50피트나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세인트 존 강의 하구에서는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곳으로 파도타기 하러 오는 미친놈은 없을 것이고 해변을 따라가면서 펼쳐지는 경치가 술술치 않아 그림쟁이들이 살기도 하고 머물다 가기도 하는 모양이다. 근교에 있는 세인트 마틴이란 곳에는 등대이고 멋으로 지붕을 씌워 놓은 두 개의 다리가 있고 유명한 바다 동굴이 있으나 비가 와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안내자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바닷가재를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데려가서 \$20짜리 랍스터를 먹여줬으

나 배에서 먹은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음식점이 밥 디딜 틈 없이 복적대는 것은 맛보다는 명성 때문이나 분위기 때문이다.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세인트 존이 있는 뉴브런즈윅 지방은 독립전쟁을 전후해서 끝까지 영국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충신'들의 피난처로 뉴 잉글랜드가 아니라 올드 잉글랜드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그제나 이제나 체제를 바꾸기를 싫어하는 꼴통들은 이곳이나 그곳이나 항상 있게 마련이다.

마지막 기항지는 뉴 스코트랜드의 핼리팩스, 영국의 교역 및 장원 상 핼리팩스 백작의 이름을 딴 곳이다. 지구의를 보면 영국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 대륙이 이곳이어서 연료를 아끼려고 북극항로를 택한 타이태닉호가 침몰했을 때 그 잔해물과 시체들을 제일 가까운 '주항'으로 가져와서 유물보존 박물관과 121구의 시신을 묻은 공동묘지가 있다. 그중 ¼ 정도는 이름도 없는 무명 시민들의 무덤이었었는데 땅에 묻히고 나면 이름을 남기거나 못 남기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곳을 보러 이번 여행을 따라왔다는 사람이 있을 만큼 유명한 페기스 포인프 등대는 1914년에 핼리팩스 남쪽 해안 돌풍이 몰아치는 바위 등덕에 세워졌는데 전설에 의하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밤낮으로 기다리는 Peggy란 여인을 위해 주민들이 등불을 밝혀 주었다고 한다. 세상에 죽은 이가 살아오리라고 고대하는 사람처럼 가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용감한 사람이 뜻이나 되겠는가.

뉴욕의 브루클린 선착장에서 케네디 공항까지 오려고 택시를 잡았다. 얼마냐고 물으니가 \$100이라다. 안내서에 약 \$40 정도라고 나와 있고 지난번 갈 때는 \$42이 나왔길래 내려서 땀 택시를 타려고 하니가 운전사가 그림 미터기로 하자고 단추를 누른다. 토요일이라 교통체증이 없는데도 빙빙 돌고 나니 \$75이 찍혀 나왔길래 따졌더니 뒤에 오는 운전사한테 물어보란다. 그런데 그 운전사는 물론 타고 온 승객들도 이구동성으로 \$72이 나왔다고 한다. 말쑥해 보서 동구 쪽에서 온 여행자 같았다. 똥 먹은 강아지가 되어 옴짝 바가지를 썼으나 바보가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똑똑한 사람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바보 측에 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을 곱씹으며 참을 수밖에...

영국의 신교도들이 신대륙에 첫발을 디딘 지도 400년이 지났다. 이들은 약척같이 일을 해서 200년 후에는 미국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냈다. 그리고 향후 200년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대국이었다. 대국에 사는 국민들은 대인이 되어야 한다. 대인이 되려면 번 만큼 베풀어야 한다. 내가 미국에 온 1975년만 해도 그들은 내게 호기심이 많았고 무언가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물어 오곤 했다. 그때는 주유소에 가면 물과 공기를 공짜로 쓰는 것은 물론 타이어 압력이나 엔진 오일도 검사해 주고 길을 물으면 그 고장 지도를 가져 주기도 했다. 국립공원에 모두 무료입장이었다.

불과 40년 전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데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돈을 내야 한다. 미국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으면 난민들이 쳐들어와서 기껏 모아놓은 재산을 그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5,2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국경에 보초를 세우고 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니들 줄 것이 어디 있느냐이다. 그 여파로 그동안 주말에 정원 일을 거들어 주러 오던 일당 \$100짜리 멕시코계 인부들이 오 핑계 조 핑계 대면서 몇 주째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점심을 최고급 햄버거로 대접하는 데도 말이다. 어느새 먼저 온 사람들의 기득권을 찾아 먹으려고 한다. 결국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등골 빠지게 일하는 수밖에 없으니 쫓은 아끼려다가 병원 신세 지기 십상이다. 예로부터 도량이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 했고 부자의 미국은 배우는 데 있었다. 나도 소싯적에는 중국 술집에 가면 팁을 아끼지 않아 '따~거란 소리를 듣기도 했으나 지금 생각하면 뻔신 짓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돈이야 또 벌면 되니까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 젊었을 때니까~.

나라의 나이를 인간의 나이와 빗대는 것은 좀 헛하지만 지금 미국의 나이는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미국인의 정신상태가 모험을 싫어하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체면보다는 실속을 더 차리고 도덕이나 정의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시야도 좁아져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하다. 귀를 막고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말을 거슬리면 노여워한다. 남들은 다 도둑놈들로 보이고 그동안 모아뒀던 재물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얼마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원정출산으로 나오는 '가점 아기'가 연간 30만 명 이상이고 그들을 80년간 먹여 살리려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고 했으나 그들이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50년간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고 속지주의는 신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인 3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트럼프라고 실상 원정출산으로 나오는 애들은 연간 3만 6천 명에 불과하고 인력이 국력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모를 리 없을 텐데 '거세 공포증'에 걸려 있는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해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장삿속에 밝은 양반이 그들을 받아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팔아먹는 짓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내 나이 또래의 의사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알게 뭐냐, 내 주식만 올라가면 되지!"하고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도 해안가의 유서 깊은 별장을 사서 호텔과 카지노로 바꿀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중 주민들로 "유적이 밥 먹여주냐, 도박장이 들어와서 나도 땡 부자나 되고 보자!"하고 버리고 있다. 젊어서는 영광을 추구하나 늙어지면 치사해진다. 나 자신도 크루즈 배로 조니워커 한 병을 밀반입하려다가 검색대에 걸렸고 공화 당의 터미널에서 젊은 애송이와 \$30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온 것을 생각하면 피장파장이다.

400년이면 강산이 40번 변하는 기간이다. 나도 이제 세대에 따라가기가 힘든 나이가 됐다. 여행 중 미국인들이 점점 영악해지고 미국이 허덕대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느꼈다. 제발 앞으로 10년간 만이라도 별 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서윤석 (의대 62)

만두

"오늘 점심엔 무엇을 먹지 아빠?" 하는 아내의 질문에 뭐 간단히 만두가 어떨까 하며 대답했더니 아내가 그러면 만두를 만들자고 서두른다. 은퇴한 후로 부엌에 가끔 들어와 설거질도 돕고 몇가지 도움을 주었지만 깔끔한 아내의 성미에는 늘 불합격이다. 깨끗하게 접시가 닦이지 못하였다는 등, 물을 너무 많이 쓴다는 등 하면서...그래도 이날 나는 아내가 시키는대로 만두속을 만들기 시작했다. 큰 양푼에 파 마늘을 송송 다져서 넣고 부드럽게 맛을 내려고 하얀 두부를 꼭 짜서 좀 많이 넣었다. 소금에 절인 배추도 양 손으로 꼭 짜서 충분히 넣었다. 그리고 돼지고기 절반, 소고기 절반, 잘 썰어져 있는 것을 다져서 넣고 참기름, 후추가루, 깨가루, 생강 다진 것, 소금을 적당

"군복무를 마치고 1년간 ... 전기도 수도도 없었던 무의촌에서 근무하던 때도 생각났다.

연탄불에 주사기를 소독해서 환자를 보고 기저귀를

개천에서 빨고 추위에 떨면서 식사를 준비하던 때 ..."

히 뿌리고나서 다 합해서 위생장갑을 끼고 버무렸다. 아내가 간이 잘 들었나 맛을 본다. 합격이라다. 만두속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만두껍질을 준비하라고 한다. 냉장고 후리저에서 꺼낸 중국산이 아닌 만두 껍질들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넣어서 녹였다. 두 세번 녹이다가 껍질이 유연해지자 만두를 만들기 시작했다.

만두껍질이 세 통인데 만두속이 너무 남지 않게 눈대중을 하면서 우리는 만두를 빚었다. 껍질을 하나씩 벗겨서 한 손에 들고 귀퉁이에 물칠을 하면서 간단한 배모양으로 빚었다.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한참 빚었는데도 만두속이 없어지지를 않는다. 그리고 다 끝날 무렵엔 만두속이 조금 남는 것이 보통이라던데 오늘날은 그 반대로 껍질이 조금 남았다. 나는 너무 많이 들어간 놈의 배를 열고 속을 꺼냈다. 틀어진 모양이 그리 매끄럽지는 못하였지만 결국 나머지 껍질을 다 쓰고 알맞게 끝냈다. 만두 빚기를 끝내니 마늘과 파를 다지느라고 눈이 아리다, 손에서 온통 만두냄새다. 그런데 뜻밖에 아내는 만두를 오늘 먹지 않기로 한다면서 다 후리저에 넣어둔다. 딸아이들이 그리고 외손자, 손녀 그리고 사위를 줄려고 준비하기도 한 일이라다. 아내 지도하에 만두 만드는 힘든 실습을 하면서 그녀를 돕고나니 간단히 만두를 먹자고 했던 내 말이 생각나서 속으로 웃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하던 아내의

표정을 이제는 이해 할 수 있었다. 이날 우리는 점심을 간단히 스파게티로 때우고 대신 저녁을 맛있는 스기야기로 배불리 먹었다.

아내가 언제 준비를 했는지 전기 오븐에 소고기 썰어놓은 것, 배추, 양파, 당근, 당면을 넣고 끓인다. 그리고 계란과 간장을 섞어서 만든 소스에 보글보글 끓고있는 요리를 덜어서 찍어 먹었다. 결혼초 대구 군의학교 교관, 군의관시절, 그 추웠던 겨울, 부엌도 없었던 동인동 셋방살이 때부터 눈이 내리던 날 처마밑에서 포터볼 개스레인지에 생선찌개를 서투른 솜씨로 끓이던 아내를 생각했다. 또 군복무를 마치고 1년간 더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전기도 수도도 없었던 무의

회칙 위원회 2018-19년 회기 중간 보고



조화연 (음대 64)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모두 4자의 이메일을 통한 정기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지난 11월 21일에 제2차 정기 회의를 마쳤습니다. 한 일은 그 동안 없는 줄 알고 있었던 우리 전 미주 동창회 초창기 회칙 우리말본을 찾았으

며 거기에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19개) amendments를 종합하여 최후의 유호한 사항을 포함시켜 최근의 회칙 수정본을 만든 것과 지난 평의원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과제로 주어진 "미주동창회 후원회" 세칙과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세칙을 영역 한 것입니다.

전미주 동창회 회칙의 수정본은 김병연(공68) 위원께서 기안을 해주셨고 위원들이 심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찾은 전미주 동창회 초창기 회칙 우리말본은 1995년 제정된 이후 1999년까지 3차에 걸쳐 개정된 수정본인데 그 이후 집행부가 이동할 때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수정본의 작성이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찾았기 때문에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첨부된 수정본을 읽어 보실 때 어떤 조항 끝에 있는 괄호 안에는개정

된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 끝에는새 개정이 필요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정본의 마지막에는 개정된 날짜와 개정한 평의원회의 차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동창회 회칙위원회와 편집부(출판국)에서는 동창회보 2008년 9월호부터 <회칙위원회 칼럼> 난을 설정하고 당시의 영문회칙을 소개하여 전 회원들께 알려드리면서 동문들의 회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회칙에의 거한 투명한 동창회 운영을 함으로서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기 위함 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말 회칙의 수정본을 만든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더욱 쉽고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주동창회 후원회" 세칙과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세칙의 영역본은 조정현 (수의 58) 위원께서 기안해 주시고 위원들이 심의해 주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두 세칙의 영역 심의를 이번 2차 회의에서 모두 마치려고 했으나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세칙의 영역에 좀더 신중히 다뤄야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는 1월 달에 있을 제 3차 회의에서 완성하기로 하고 이 번에는 이미 심의가 완료된 미주동창회 후원회 세칙 영역본 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안을 해주신 두 본의 위원님들과 새로운 제안을 많이 하여 주신 한재은 전 위원장님과 서종민, 이강원 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명예회장 1 인 (새 개정안 #21) 차기 회장 1 인 (2008. 5. 17) 부회장 각 지역 동창회장 감사 2 인 사무총장 1 인 미주동창회 후원회 부회장 1 인 총무국장 1 인 재무국장 1 인 출판국장 1 인 섭외국장 1 인	임명된다. 6. 미주 동창회후원회 부회장은 회장의 제정에 의하여 평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본 회는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Inc.)라 칭한다. (2008. 5. 17)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복지와 지역사회 봉사를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 5. 21)	2.(평의원):
제 3 조 (소재지)	가. 당연직 평의원: 본회의 회장, 명예회장, 전임회장, 차기 회장, 현직 사무총장과 직전 사무총장 및 미주 동창회후원회 부회장 (2007. 5. 19)	
본회는 본부를 총동창회 회장이 선출된 곳에 두고 지역동창회는 각 지역별 동창회장이 선출된 곳에 둔다. 지역(지부)별 동창회는 동 지역 회장단의 가입 신청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동창회에 소속하게 한다. 다만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새 지부의 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임원진의 결정에 의하여 우선 새 지부로 영입하고 추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후문 개정 2008. 5. 17)	나. 각 지부의 동창회장과 차기 회장 (차기 회장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회장)	
	다. 상임이사 (2007. 5. 19)	
	라. 종신 이사회비 \$3,000을 기부하신 분들은 종신 평의원으로 대우한다	
	마. 각 지부의 선출 평의원 (2009. 5. 16)	
	바. 종신이사는 자동으로 평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종신 이사로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종신 이사들만이 평의원의 자격으로 평의원회의에 참석하며 이들은 정족수에 포함된다. (2010. 6. 15)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미합중국 각 주에 거주하는 동창으로 한다.	사. 미주 서울대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은 평의원 회의에 참석 시에는 자동적으로 평의원 자격을 갖는다. (2012. 7. 9)	
1. 정회원은 본 대학교를 입학한 기록이 있는 자로 한다.	아. 미주 동창회는 회장 고문, 모교 발전기금 위원장, IT 위원장, 회칙 위원장, 회보 편집 위원장, Brain Network 위원장, 사회 봉사 위원장, 그리고 감사 2 인에게 평의원의 자격을 준다. (2008. 5. 17)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2.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7조 (임원과 임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1. (회장단): 회장 1 인	제 8 조 (임원선출)	1. 회장, 차기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선출 평의원은 각 지역 동창회에서 선출하여 각 지역의 해당 수는 정회원수에 비례하여 지부 동창회와 상의하여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2009. 5. 16) 3. 지역동창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4. 본회의 직전회장은 자동적으로 명예회장이 된다. 회장이 연임할 경우 명예회장도 자동 연임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정에 의하여 평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게 되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불참 시에는 위임장은 허용
이 안 된다. (2014. 6. 28)

6. 평의원회는 출석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 심의 인준
- (2) 사업계획 수립 및 회보 발행
- (3) 회비 및 분담금 결정
- (4) 회칙의 제정과 개정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미주동창회후원회 이사분담금, 임원의 분담금, 독지가의 찬조금과 회보구독료 등의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장학금 기타 특수 목적을 위한 찬조금은 재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리한다.

제 12 조 (사무처)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 (1) 재정 위원회
(2) 출판 위원회

Rules and Regulations of SNUAA-USA Sponsoring Committee

Article 1: Purpose

This Alumni Sponsor Committee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funding and ensuring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e activitie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 S. A., Inc.

Article 2: Composition of Sponsoring Trustees

1. A Sponsoring Trustees system shall be put in place to commend members who have contributed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the fund for the SNUAA-USA.

2. Sponsoring Trustees consist of Regular Sponsoring Trustees and Lifetime Sponsoring Trustees; Lifetime Sponsoring Trustees consist of Silver Lifetime Sponsoring Trustees, Gold Lifetime Sponsoring Trustees, Platinum Lifetime Sponsoring Trustees, and Diamond Lifetime Sponsoring Trustees.

Article 3: Appointment of Sponsoring Trustees

1. The Corporate President shall appoint Sponsoring Trustees from among the regular memb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each chapter and the wishes of each person so recommended, and the allotted number of Sponsoring Trustees for each chapter shall be determined in consultation with chapter president in consideration of its number of members and the capacity thereof.

2. Aside from the foregoing Paragraph 1, if the Corporate President finds the chapter's recommendations inadequate or determines other persons are needed to secure funding for the Alumni Sponsor Committee, the Corporate President may entrust a Sponsoring Trustee from among the membership who wishes to make financial contributions.

3. The number of sponsoring trustees shall be a total of 250 or more.

4. The Corporate President shall provide a written report of the list of Sponsoring Trustees and any changes therein as well as of income received through contributions made by the Sponsoring Trustees every year to the Assembly of Delegates.

Article 4: Term for Sponsoring Trustees

1. The term for Regular Sponsoring Trustees shall be one year, and shall end at the same time as the regularly scheduled general meeting of the Assembly of

- (3) 회칙 위원회 (2007. 5. 19)
- (4) 장학 위원회 (2007. 5. 19)
- (5) 미주 동창회 후원회 (2014. 6. 28)
- (6) 포상 위원회 (2007. 5. 19)
- (7) 회장 후보 추천 위원회 (2010. 6. 15)
- (8) 모교 발전 기금 위원회 (2014. 6. 28)

부 칙

- 1) 본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은 1995년 5월 20일 (LA) 제4차 평의원회에서 통과함.
- 3) 1차 개정: 1996년 4월 27일 (제5차 평의원회 결의)
- 4) 2차 개정: 1997년 5월 24일 (제6차 평의원회 결의)
- 5) 3차 개정: 1999년 12월 18일 (제8차 평의원회 서면결의)
- 6) 4차 개정: 2005년 5월 21일 (제14차 평의원회 통과)
- 7) 5차 개정: 2007년 5월 19일 (제16차 평의원회 통과)
- 8) 6차 개정: 2008년 5월 17일 (제17차 평의원회 통과)
- 9) 7차 개정: 2009년 5월 16일 (제18차 평의원회 통과)
- 10) 8차 개정: 2010년 6월 15일 (제19차 평의원회 통과)
- 11) 9차 개정: 2013년 6월 22일 (제22차 평의원회 통과)
- 12) 10차 개정: 2014년 6월 28일 (제23차 평의원회의 통과)

1. Pursuant to Article 5 Paragraph 1 herein, funds contributed by a regular Sponsoring Trustee may be used for the purpose of undertaking the general business of the Corporation.

2. Pursuant to Article 5 Paragraph 2 herein, contributions made by Lifetime Sponsoring Trustees shall be deposited in and managed in a special account (SNUAUSA CENTURY FOUNDATION) for that purpose, and the amount raised shall be three million dollars.

3. The principal deposited in the special account may be used only for matters decided on by the Assembly of Delegates, while interest or profits may be used at the discretion of the current Corporate President without undergoing the proceedings of the Assembly of Delegates.

4. A Subcommittee of Executive Trustees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Sponsors Committee (formerly the "Gwanak Sponsors Committee") for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funds.

4-1. The Subcommittee of Executive Trustees shall consist of five Lifetime Sponsoring Trustees,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Corporate President and approved by the Assembly of Delegates.

4-2. The Vice President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Sponsor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by the Corporate President and shall be the Head of the Subcommittee of Executive Trustees and shall assist the Corporate President.

4-3. The Term for Executive Trustees and the Head of the Subcommittee of Executive Trustees shall be two years (the same as the term of the Corporate President) and may be extended.

4-4. The Subcommittee of Executive Trustees shall permanently store all records and documents regarding the undertaking of dutie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finances.

4-5. The Subcommittee of Executive Trustees shall receive regular accounting audits, and shall present the foregoing records and documents when so requested by an accounting auditor on any other occasion.

5. An English translation shall be maintained for the purposes of any IRS audits.

Article 8: Execution

1. The Corporate President shall execute the general duties of the US Alumni Sponsor Committee.
2. The Vice President for the US Alumni Sponsor Committee shall assist the Corporate President and may seek the cooperation of the Secretary General.

업소등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 2차 회기: 2017.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illegible]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73명)

골드 출신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태 (수의 62)*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정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근 (약대 64) 임용호 (공대 61) 전희택 (의대 60) 저영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중환 (사대 54) 한규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뉴욕 김광호 (문리 62) 오인석 (법대 58)* 윤정호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진구 (농대 60) 이재혁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광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워싱턴 DC 강영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홍 (법대 60)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록 (수의 68)	플로리다 김종현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출신이사 (교인) - 표 : 한변이상 내신 분
--	--	--	--	--	--	---------------------------------------	---	---	--	---	---	---------------------------------------	--	---	--

남가주 SCA/NV	박태호 (치대 66) 박호현 (의대 52) 박홍근 (공대 64)* 강경수 (법대 58) 강동순 (법대 59) 강윤희 (간호 46) 강정훈 (미대 56) 강중경 (공대 48) 강홍제 (상대 53) 고병철 (법대 55) 권기상 (경영 72) 권기영 (문리 50) 권영재 (의대 57) 권처균 (공대 51) 김건진 (문리 62) 김광은 (음대 56) 김동산 (법대 58) 김동훈 (법대 56) 김병원 (공대 58) 김상찬 (문리 65) 김식홍 (법대 59) 김성기 (상대 59) 김순자 (치대 57) 김순덕 (간호 61) 김 영 (수의 63) 김영덕 (법대 58) 김영순 (음대 59) 김원경 (악대 59) 김원택 (공대 65) 김원호 (악대 63) 김옥경 (가정 60) 김은경 (음대 66) 김진식 (의대 60) 김진종 (농대 74) 김일영 (의대 65)* 김정애 (간호 69) 김종표 (법대 58) 김준일 (의대 57) 김진식 (공대 66) 김진형 (문리 55) 김창무 (음대 53) 김태윤 (법대 53) 김태호 (상대 57) 김현철 (의대 57) 김희재 (사대 66) 김희창 (공대 64) 나두섭 (의대 66) 나민주 (음대 65) 나승욱 (문리 59) 노명호 (공대 61)* 문경호 (문리 59) 문병하 (법대 51)* 문민일 (공대 51) 박대균 (수의 57) 박명근 (상대 63) 박부강 (사대 64) 박우성 (사회 77) 박원준 (공대 53) 박익순 (의대 64)* 박인창 (농대 65) 박임하 (치대 56) 박찬호 (농대 63)* 박창규 (악대 59)* 박창선 (공대 55) 박취서 (악대 60)	이재선 (농대 58) 이창무 (공대 54) 이창광 (상대 61)* 이현찬 (치대 75) 이희충 (공대 68) 임동규 (미대 57) 임종욱 (사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석중 (공대 51) 임창희 (공대 73) 임화식 (치대 59) 장유희 (사대 54) 장인숙 (간호 70) 전경철 (공대 55) 전낙관 (사대 60)* 전범수 (농대 71) 전상욱 (사대 52) 정균희 (의대 66)* 정동규 (공대 57) 정동주 (가정 72) 정수만 (의대 66) 정영운 (상대 63)* 정예현 (상대 63)* 정재훈 (공대 64) 정철름 (의대 55) 정형민 (문리 71) 정현희 (상대 69) 정 황 (공대 64) 정희영 (치대 58) 염동해 (농대 74) 오선웅 (의대 63) 오송자 (사대 59) 오양숙 (간호 60) 유태훈 (상대 48) 유석홍 (상대 61) 유재한 (상대 67) 유진형 (상대 47) 유정민 (법대 55)* 유석철 (상대 60) 유용길 (공대 55) 오송자 (사대 59) 이건영 (문리 71)* 이건일 (의대 62) 이광재 (공대 59) 이근원 (공대 67) 이기재 (사대 52)* 이민정 (의대 83) 이방기 (농대 59) 이범식 (공대 61) 이병준 (상대 55) 이서희 (법대 70) 이성숙 (상대 56) 이소희 (의대 61)* 이영일 (문리 63) 이영현 (간호 70)* 이원익 (문리 73) 이은경 (간호 80) 이익삼 (사대 58)* 이창길 (치대 63) 이정희 () 이정근 (사대 60) 이준호 (상대 65) 이중도 (공대 66) 이재균 (법대 56) 이재룡 (공대 71)	김영석 (상대 62) 김정복 (사대 55) 김정자 (사대 51) 김정희 (음대 56) 김현왕 (공대 64) 김희봉 (공대 68) 민병국 (공대 65) 박경룡 (악대 63) 박서규 (법대 56) 박성수 (공대 59) 박종성 (법대 53) 박종영 (상대 52) 박찬호 (자연 81) 부영무 (치대 72) 송창순 (공대 69) 송영훈 (상대 57) 신규영 (공대 64) 안병형 (공대 58) 안현수 (상대 67)* 양명교 (의대 55) 윤성희 (사대 58) 온기철 (의대 65) 이강우 (문리 59) 이관모 (공대 55)* 이성형 (공대 57) 이현숙 (사대 62) 이홍기 (공대 62) 임정란 (음대 76) 전병련 (공대 54) 전해경 (문리 67) 정규남 (공대 52) 정양자 (문리 54) 정우석 (의대 58) 정진수 (공대 56) 정춘임 (간호 67) 최경선 (농대 65)* 박은숙 (문리 54)* 홍병하 (의대 68) 황동하 (의대 65) 황만익 (사대 59) ● ● ● ● ● ● 뉴욕 NJ/NY 강교숙 (간호 73) 강영선 (공대 50)* 강애드 (사대 60) 게동휘 (치대 67) 고광호 (악대 56) 고순정 (간호 69) 공화삼 (농대 64) 권문용 (미대 61) 권영국 (상대 60) 곽노섭 (공대 49) 곽상준 (악대 55) 곽선섭 (공대 61) 곽승용 (의대 65) 김경순 (상대 59) 김광현 (미대 57) 김명승 (상대 65) 김문경 (악대 61) 김병권 (문리 63) 김병숙 (보건 65) 김병술 (의대 52) 김봉련 (사대 54)	김상만 (법대 52) 김성현 (악대 56) 김세환 (공대 65)* 김승호 (공대 71) 김영무 (공대 75) 김영애 (사법 56) 김영철 (의대 55) 김영희 (간호 53) 김원주 (의대 54) 김우영 (상대 60) 김유순 (간호 64) 김윤수 (상대 50) 김용연 (문리 63)* 김정희 (간호 69) 김정희 (악대 56) 김태수 (악대 64) 김정진 (상대 58) 김한중 (의대 56) 김현중 (공대 63) 김훈일 (공대 60) 김희자 (미대 66) 류재룡 (공대 58) 류석면 (의대 52) 문소자 (음대 60) 민발식 (의대 60) 박건이 (공대 60) 박수안 (의대 59) 박순영 (법대 56) 반영철 (악대 54) 방준재 (의대 63) 변호련 (간호 63) 배명애 (간호 47) 배상규 (악대 61) 배정희 (사대 54) 서 랑 (의대 63)* 서정웅 (악대 63) 석창호 (의대 66) 신창철 (의대 57) 성기로 (악대 57) 손갑수 (악대 59) 송경희 (사대 59) 송영우 (사대 64) 송승희 (대원 69) 신정윤 (공대 60) 신춘희 (간호 53) 안태홍 (상대 65) 연봉원 (문리 61) 요민근 (의대 52) 우대식 (문리 57) 우상영 (상대 55) 유영호 (의대 52) 유재섭 (공대 65) 유태산 (문리 58) 육순재 (법대 55) 윤봉균 (사대 54) 윤영섭 (의대 57) 윤종숙 (악대 66)* 윤 철 () 유현남 (공대 64)* 염국용 ()* 이강욱 (공대 70) 이강홍 (상대 60)* 이경림 (상대 64) 이정대 (공대 63) 이국진 (사법 51)	이대영 (문리 64) 이상무 (의대 56) 이영숙 (간호 56) 이운순 (의대 52)* 이유성 (사대 57) 이재원 (법대 60) 이정은 (의대 58) 이충석 (상대 57) 이중환 (법대 51) 이준형 (공대 48) 이충호 (의대 63) 이태안 (의대 61) 이해정 (악대 62) 이혜숙 (음대 68) 임공세 (의대 61) 전병환 (악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정인식 (상대 58) 정인용 (의대 65) 정창동 (간호 45) 조경숙 (가정 71) 조경애 () 조남천 (사대 59) 조달훈 (사대 66)* 조명애 (간호 47)* 조아미 (음대 61) 조충수 (공대 64) 조종원 (62) 차국만 (상대 56) 차수만 (악대 71) 최구진 (악대 54) 최영태 (문리 67) 최종진 (의대 55) 최진영 (문리 55)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병용 (문리 71) 한영수 (의대 61) 한태진 (의대 58) 허병렬 (사대 42) 허선형 (의대 58) 허유선 (가정 8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황용규 (의대 68) 황 윤 (악대 81)	이영민 (사대 74) 이은주 (음대 73) 이의민 (공대 68) 이재신 (공대 57) 장용복 (공대 58) 정선주 (간호 68) 정성환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조성호 (공대 85) 주창준 (의대 50) 홍지룡 (간호 70) ● ● ● ● ● ● 라스베가스 LV/NV 김영중 (치대 66) 김택수 (의대 57) ● ● ● ● ● ● 룩키마운틴 MT/CO/WY/NM 송요준 (의대 64) 이경화 (공대 56) ● ● ● ● ● ● 미네소타</
----------------------	---	---	--	---	---	--

이준영 (차대 74)	류성렬 (공대 72)	김학래 (공대 60)	황명규 (공대 61)	심삼선 (의대 67)	최정용 (공대 64)	김기춘 (상대 52)*	박재현 (자연 81)	휴스턴
이종두 (의대 57)	박진수 (의대 58)*	김현학 (의대 57)		안세현 (의대 62)	최준희 (의대 58)	유시영 (문리 68)	서갑식 (공대 70)	HOUSTON
이진호 (공대 46)*	안승적 (농대 59)	박천기 (법대 55)	필라델피아	엄종렬 (미대 61)	최현태 (문리 62)	임경빈 (농대 78)		
전희순 (간호 76)*	윤태근 (상대 69)	손종수 (의대 50)	PA/DE/SJ/NJ	유기병 (문리 64)	한수용 (의대 55)	주공로 (공대 68)	하와이	김기준 (공대 61)
정원자 (농대 62)	이길승 (상대 57)	안승덕 (상대 51)*		유영걸 (의대 70)	한홍오 (보건 70)	최수강 (의대)	HAWAII	김태훈 (공대 57)
정평희 (공대 71)	이순모 (공대 56)	오경호 (수의 60)	강영배 (수의 59)	이윤정 (음대 57)	한홍택 (공대 60)	최창승 (의대 54)*		김한섭 (의대 53)
정희연 (의대 66)	이원섭 (농대 77)	유성무 (상대 66)*	강준철 (사대 59)	이규조 (공대 56)		홍성취 (공대 56)	김승태 (의대 57)	박석규 (간호 56)
조치현 (의대 65)	이희배 (의대 55)	유우영 (의대 61)	김규화 (상대 63)	이만택 (의대 52)	플로리다		주재호 (문리 57)*	박유미 (약대 62)
조화유 (문리 61)*	하주홍 (경영 77)*	임수암 (공대 62)	김영우 (공대 55)	이병민 (수의 73)	FLORIDA	캐롤라이나	윤재중 (농대 54)	박태우 (공대 64)*
최경수 (문리 54)		정선휘 (공대 65)	김재술 (약대 48)	이성득 (문리 67)*		SC/NC/KY	이재형 (수의 61)	유한창 (공대 69)
최규식 (상대 64)	유타	최종진 (의대 63)	김한중 (공대 56)	이성숙 (가정 74)	김동한 (문리 53)		장광수 (사대 51)	이규진 (약대 60)
최동호 (공대 68)	UTAH/NV	한 호 (상대 62)	김현영 (수의 58)	전무식 (수의 61)	김중권 (의대 63)	마동일 (의대 57)	차용만 (의대 58)	이영록 (가정 74)
최재규 (미대 63)*		중부텍사스	김 훈 (의대 71)	전방남 (상대 73)	박창익 (농대 64)	성경영 (치과 54)	최경윤 (상대 51)	진기주 (상대 60)
최재규 (수의 60)	김인기 (문리 58)	MID-TEXAS	노은숙 (약대 53)	전하곤 (의대 54)	윤기향 (법대 65)	윤 숙 (문리 66)		최관필 (공대 54)
홍영석 (공대 58)	이 관 (공대 55)		문대옥 (의대 67)*	정덕준 (상대 63)	임필순 (의대 54)	이달호 (사대 45)	하트랜드	최성호 (문리 58)
홍영록 (음대 54)		박준섭 (약대 63)	서의원 (공대 66)	정태광 (공대 74)	전영자 (미대 58)*	이범세 (의대 59)	IA/MO/KS/NE/	최용현 (의대 53)*
.....	조지아	이영재 (상대 58)	서재진 (공대 47)	정홍택 (상대 61)	최준희 (의대 58)	이범세 (의대 63)	AR/OK	탁순덕 (사대 57)
워싱턴주	GA/AL/MS		서종민 (공대 64)	제갈은 (문리 59)	한기빈 (공대 52)*	이종영 (음대 58)		
WASHINGTON		북부텍사스	성정호 (약대 59)	조같은 (문리 59)	한성수 (의대 54)	한광수 (의대 57)	김경숙 (가정 70)	지역 불명
고광선 (공대 57)	강창석 (의대 73)	LA/DALLAS	송성균 (공대 50)	조영호 (음대 56)	홍 순 (문리 75)	홍 훈 (문리 75)	김시근 (공대 72)*	김현주 (문리 61)
김교선 (법대 54)	김순옥 (의대 54)		송영주 (의대 56)	조정현 (수의 58)	황현상 (의대 55)*		성낙준 (사대 68)	
김인배 (수의 59)	김영서 (상대 54)	유 황 (농대 56)	신선자 (사대 60)	조화연 (음대 64)		테네시	이상강 (의대 70)	
김재훈 (공대 72)	김용건 (문리 48)*	이석호 (공대 78)	신성식 (공대 56)	주기록 (의대 68)	커네티컷	TENNESSEE	임영신 (의대 54)	
김주영 (의대 56)	김종수 (수의 73)	탁혜숙 (음대 67)	신의석 (공대 53)	지홍민 (수의 61)	CT		차봉희 (의대 51)	
	김태형 (의대 57)		심영석 (공대 76)	전병학 (의대 57)		김경덕 (공대 75)		
				차호순 (문리 6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	☐ \$75 (2018. 7 ~ 2019. 6) ☐ \$150 (2018. 7 ~ 2020. 6) ☐ \$3,000 (중신이사회비)	☐ \$240 (2018. 7 ~ 2019. 6) ☐ \$480 (2018. 7 ~ 2020. 6)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u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임춘택 공인회계사 (상대 68)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s 김원철 (농대)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KOOG WON KWUN CPA & ASSO, INC 권국원 (공대) Tel. (213) 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os Angeles, CA 90005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엄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el) 323-965-1717 / Fax) 323-965-1855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 (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 (909) 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el.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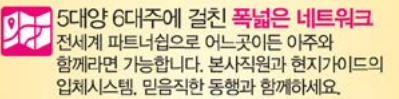
한국트로피 / 한국탁올사 박양중 (문리대 61) Tel.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광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광고주를 모집니다.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마트너쉽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아파트 투어 문의: D.C. 상훈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KCC News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제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9개국 선교지 12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디자인)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용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 위원회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광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사),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록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영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석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북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15
SINCE 2000
ANNIVERSARY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 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미주동창회의 대도약을 기대하며,
연말연시를 맞아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의 62)

Bring the Salon Home
KISS

아름다운 세상, **KISS**가 이어갑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뷰티전문기업으로 전세계 더 많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KIS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www.kissusa.com

김광호 (문리 62), 신규천 (상대 73), 한규상 (미대 84), 김영훈 (공대 93)